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교육원
수원시평생교육원
수원시평생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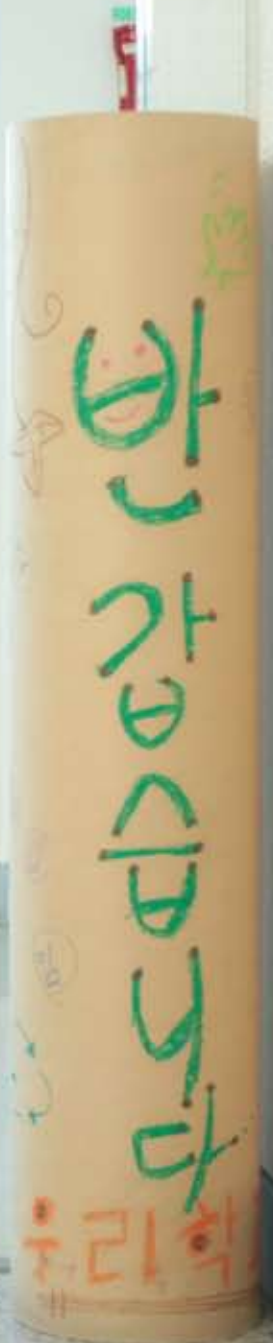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교육원
수원시평생교육원
수원시평생교육원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학교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학교

목차

4	여는 글	21	2015 주요사업	57	2015 이렇게 일했습니다	105	2015 프로그램 다시보기
12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걸어온 길	22	시니어, 새로운 인생을 열다 _ 뭐라도학교	58	인문사회	106	나와 세상을 위한 글쓰기 + 읽기모임 글향아리 안다미로
16	숫자로 보는 2015년	32	마을과 사람이 함께 자란다 _ 누구나학습마을	62	도요새책방	108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 + 북콘서트
		44	이제, 시민교육이다 _ 심포지엄&시민교육포럼	65	더느린삶	112	시민기자학교 : 세상과 만나는 글쓰기
		52	통계로 보는 2015년	68	동네 수(手)작업장	114	동네 수(手)작업장
				71	시민리더	116	더느린삶
				75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118	도요새책방 새단장파티 : 동네 북BOOK소리
				78	생활문화 프로그램	120	웰컴투수원 + 웰컴투수원 곡선동
				81	지역연계	124	놀이터 프로젝트 : 따로 또 같이
				87	누구나학교	127	가을명랑운동회
				90	평생학습 아카이브	129	아무나뮤직 + 창작발표회
				92	2015년 프로그램 목록	132	지역네트워크 - 수원원도심이야기<남문사람들>
						133	독립출판 인디자인 워크숍
						136	생활문화강좌 발표회
						138	함께하는 사람들



분주한 게으름을 넘어서기

‘분주한 게으름’ 속에서 질문하기

1865년,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여동생의 편지를 받고 니체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썼다.

“만약 네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하지만 네가 진리의 사도가 되고 싶다면 질문하라”

그러나 니체의 말처럼 ‘질문’은 거창하게 ‘진리의 사도’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왜’가 빠진 곳에는 노예적 순응만 있을 뿐, 그것은 결코 주인다운 삶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이것을 학습의 범위로 좁혀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가 없는 학습은 단지 지식의 소비일 뿐 진정한 성숙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비단 개인적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에서 이것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곧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될 것입니다.

2015년, 수원시평생학습관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획한 일, 갑자기 끼어들어온 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곱절로 늘어난 일, 루틴한 일, 결과는 장담할 수 없으나 새롭게 시도한 일, 무한루프에 허덕인 일...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해 새로운 일들을 추가로 벌이고 있으니 직원들은 몸과 마음이 바쁠 수밖에요.

불교승 소갈 린포체가 말했다는 ‘분주한 게으름(Active Laziness)’.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쌓아 두고는 책임감에 짓눌리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는데, 기실 우리는 바쁘게 일했으나 혹 분주한 게으름에 빠져있었던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속도를 멈추고 방향을 점검해야 했으나 결국 연말이 되어서야 그 ‘바쁘다’는 것에 ‘왜’라는 칼날을 들이대었습니다. 무심한 일상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 생활해 온 인류의 지혜에 기대어 한 해의 끝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왜’라고 하는 반성을 가슴 시리게 만나게 됩니다.



조직의 개편

수원시평생학습관처럼 비영리기관에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매니지먼트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의 관리행위를 말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역시 사람이며 결국 이의 배치 문제가 중요한 매니지먼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구성원을 어떻게 편제하고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어떻게 시스템화 시키느냐가 조직 차원에서 보면 결코 놓치지 않은 과제입니다. 혹시 여러 기관의 조직도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상기와 같은 이유 때문에 조직도는 단지 업무상의 편제가 아닌 그 기관의 성향이나 혹은 지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은 학습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교육팀에 인적, 물적으로 많은 자원을 집중하여 전진배치 합니다만 저희는 2011년 개관 당시 교육팀 외에 기획팀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일선 기초자치단체 학습관 중에서 기획팀을 별도의 부서로 둔 기관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학습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야 한다’는 가치와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연구 기능을 탑재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민과 역할을 일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학습관은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은 제공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로 패턴화 된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저희 직원의 명함에는 특별한 직책이 없는 경우 ‘연구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상징기호이기도 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이 혹시 다른 기관과 차별성을 보였다고 하면 이런 가치와 그 철학이 반영된 조직 편제와 실행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후 3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다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해 보았고 이에 따라 처음과는 달리 상황과 조건이 변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관의 사업 내

용이 달라져야 하고 이에 기반하여 조직 편제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획팀을 해체하고 기존의 업무를 혼들어 조직 체계를 파트1, 2, 3으로 재편하였는데 2015년 조직 개편의 골자는 지역사업을 자기 정체성으로 하는 파트2의 신설이었습니다.

저희 업무의 태반은 학습관을 찾아 온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만 저희의 시야는 지역을 향해 있습니다. 이곳 학습관에는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생활문화강좌와 인문학을 학습하러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쑥스러움을 벗고 한글을 배우기 위해 오시는 분, 늘그막에 컴퓨터와 씨름 하시는 분, 서툰 솜씨지만 진지하게 따라 배우는 장애인. 때론 눈물 나는 사연도 많습지만 저희의 바람은 단지 개인의 지식, 교양을 넘어 동시대와 호흡하기를, 그리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단위, 마을 단위, 커뮤니티 단위에서 일상의 생활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길게 봐서 처음 위탁을 하던 3년이 조직의 세팅과 안정,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이후 3년인 시즌2에는 지역에 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 것입니다. 지역사업을 지향한다고 할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지역에 직접 뛰어들어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3년 전부터 <누구나학습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마을에 각각 1명의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마을 주민이 스스로 선생과 학생이 되어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 그것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파견된 코디네이터가 아닌 마을 주민이 스스로 리더가 되어 자립적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사업에서 흔히 나타났던 패턴, 즉 제공된 핵심 자원이 빠질 경우 그동안의 성과도 와해되는 단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주민리더에 의해 스스로의 지속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을사업의 성패를 측정하는 기본요

소입니다. 이렇게 보면 <누구나학습마을> 사업은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각 마을별로 편차는 있으나 새로운 리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지혜를 통해 추진 주체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관에서는 향후 2년 동안 새로운 리더 그룹의 소프트 랜딩을 위해 애를 쓰고 지원을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의 단체나 인적자원과 결합하여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을 위시한 지역사업은 치고 빠지는 단기전이 아니라 참을성 있게 버텨내는 근기가 필요한 장기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학습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에 배치하여 묶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자원이라도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 명

을 장기간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누구나학습마을> 사업은 경기도의 공모사업이라 외부의 자원을 통해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기관·단체·인적자원과 더불어 일을 도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추진한 것이 <지역 네트워크-마을 인문학>입니다. 지역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기관·단체들은 자원이나 홍보 혹은 새로운 기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학습관에서 제공하는 한편 지역 단위에 학습문화 촉진과 근거지를 단단하게 만들어 마을의 학습력을 높일 수 있다면 상호 윈윈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지역의 기관을 물색, 추진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1학기 - 도시읽기 마을읽기(매탄동-한벗지역사회연구소),
나와 지역을 바꾸는 지역화페(정자동-솔대노리협동조합)
- 2학기 - 수원원도심이야기(행궁동-골목잡지 사이다),
미술과 친해지는 교실(행궁동-문화상회 다담),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수원지역시민교육연구모임)

그러나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기관이나 단체와 접촉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데 학습관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 사전 논의와 접촉 풀이 크질 못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크게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오는 한계와 제약도 있었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취지의 공감도가 높고 필요성이 절박해야 사업의 밀도가 높아지는 법인데 각기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해, 요구의 상이 등으로 인해 높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업방향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후로도 지역민들과 함께 학습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개인, 기관, 단체와 언제나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제공이 아닌 플랫폼의 구축

저희 학습관에서 의욕적으로 실행한 사업 중 하나가 <뫼라도학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통계에 의하면 가장 많은 우울증 환자가 나타나는 연령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50~60대는 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는데 이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육체적으로도 여전히 건강하고 이전 세대의 노인과는 달리 학력수준도 높고 사회적 경험치도 달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는 단지 우리 사회가 케어해야 할 부담스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녹여 낼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습관에 서는 단지 한 두 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이면서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학습을 하고 또 특정 아이টে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런 플랫폼을 단단하게 만들어 시니어에 대한 교육과 창의적 활동이 그 플랫폼 기반 위에서 자체적으로 구동이 될 수 있다면 시니어에 관련한 저희 기관은 손을 떼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제2의 인생학교'를 수료한 40여 명을 중심으로 6개월 가량의 준비를 통해 올 초 <뫼라도학교>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뫼라도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장 및 각 팀장을 선발하여 운영 주체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매주 수요일 회의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90여 명의 회원과 운영주체가 있지만 아직은 학습관의 지원과 역할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최대 목표는 그분들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스스로 완전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뫼라도학교>의 성장에 따라 학습관의 지원과 역할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의욕적인 출발이 높은 성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담'이라는 월간 강좌의 경우 강사와 주제에 따라서는 비회원인 여타의 많은 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하지만, 강좌가 내부의 내적 성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사 중심의 학습을 넘어 회원 스스로 자발적인 학습 소모임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학습이 일상의 문화가 되고 내적 성숙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뫼라도학교>에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인생수업' 프로그램을 수료할 때에는 사전에 팀을 구성해서 아이টে를 도출하고 사업 방안을 기획하여 팀간 '뫼라도 어워즈'를 시행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여러 사업단이 만들어지는 데 실제 구체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업단이 있는 반면, 추진 동력이 부족해서 주저앉거나 성장 발전이 아니라 현상 유지의 정체성을 보이는 사업단도 있습니다. 사업단은 멤버들의 '학습'과 더불어 <뫼라도학교>의 양대 날개입니다.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사업단을 통해 활성화가 되어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니어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2015년 <뫼라도학교>는 2016년에 해야 할 일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그러나 역부족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도처럼 긴 호흡과 다양한 방식도 아니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숨막히는 주입식 학업 일변도의 학제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숨통을 만든 것은 의미 있

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실을 다지고 모범적 성과를 이루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것을 질적 양적으로 더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을 비단 학교 당국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지역과 마을이 나서서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 특히 자유학기제는 학교와 지역, 학생과 이웃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큰 통로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2년째인 2015년 현재, 사회적으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자유학기제에 관한 정보조차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다니며 취재한 내용을 웹진을 통해 기사화하였고 이후에도 약 3개월 가량 시리즈 기사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시민사회에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나 당위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메시지에 경험을 얹어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발은 가만히 둔 채 입으로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면적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여 일선 중학교에 찾아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시기가 너무 늦기도 했고 제안 내용이 매력적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소요되는 일에 학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학교 당국과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6년에는 더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 관련 사업을 전개할 생각이었지만 저희의 실력 부족과 여타 여건의 미비로 자유학기제는 이제 제한된 영역에서만 진행을 할 계획이어서 참 아쉬운 대목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도, 웰컴투수원과 수작업장

이사 하는 날 꼭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짜장면. 그러나 낯선 곳에 처음 가게 되면 당연히 어느 집 짜장면이 더 맛있는지, 마을살이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 아이와 손잡고 가볼 만한 곳은 어디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옆집에서 살갑게 맞이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수원의 경우 지난 2013년 기준 한 해 전입인구가 19만 5천 5백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0여 만명이 저마다의 사연과 꿈을 안고 살기 시작하는 수원 그리고 마을. 오리는 알에서 나올 때 처음 보는 것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어미로 여긴다지만 사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자식 간에 내리사랑이라면 처음 온 입주민에게는 기존 주민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럴 경우 입주민도 마을사람, 마을살이에 대해 좋은 인상과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심화 등으로 이웃과의 차단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 수저까지 알 정도의 깊은 관계는 거부해도 이웃으로서 최소한의 관계망까지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관계의 회복을 회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계기와 주체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국 <The U>의 느슨한 연대관계



(Weak Ties)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민, 마을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고 이웃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전입주민 환대 프로그램 <웰컴투수원>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일은 학습관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입주민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행정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또한 환대의 주체는 학습관이 아닌 마을의 기존 주민이어야 하

기 때문에 마을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 중심의 조직이 꾸려져야 합니다.

당연히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함께 한 공무원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보기 드문 행운이었고, 마을 주민 중심의 서포터즈가 꾸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간단치 않은 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마을 주민 15명이 스스로 서포터즈를 꾸려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한 곡선동의 모범적 사례가 나와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웰컴투수원> 사업은 당분간은 학습관이 나서서 하겠지만 향후로는 해당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열의가 있는 지역주민이 나선다면 괜찮은 지역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다'의 반대말은 '팔다'가 아닙니다. 자본제적 양식에서 사다-팔다는 한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 있는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다'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단어는 '만들다'가 아닌가 합니다. 자본제 하에서 사람은 영원한 소비자입니다. 자신의 욕망뿐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 욕망의 표현은 주로 소비와 과시로 존재합니다. 이 영생불변의 법칙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만들다'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소비에 길들여져 원시적 야생성이 거세된 현대인,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래서 생산자이자 창조자가 되는 것은 매우 색다른 도전이기도 합니다.

2015년 초, 학습관의 한 공간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습니다. 특히 그 공간은 각종 모임 및 강의 등 다양한 용도로 요긴하게 쓰이던 곳이라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공간이 수(手)작업장 목공방입니다. 목공은 참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도구와 근육을 통해 무엇인가를 창조해 낸다는 원시적 기쁨을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

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게다가 무엇인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일반 시장가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을 인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꿈은 많은 수강생의 확보가 아닙니다. 목공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목공을 매개로 커뮤니티를 꾸려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5년 첫 해는 최소한의 기틀만 다지는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주중, 주말 목공수업이 진행되어 기존 학습자들과는 다른 욕구를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외중에 '몸쓸공작단'이라는 커뮤니티도 만들어져 아직은 어설피지만 자신이 배우고 익힌 목공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창작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도구 없이 오직 수공구로

만 진행하는 손가락, 그릇 깎기라는 신선한 시도도 있었고 부엌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진한 아쉬움은 차기 년도의 과제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목공을 통해 펼치고 싶은 꿈은 컸지만 계획 없는 꿈은 결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저희의 실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단단한 내적 성숙이 저희의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가역적과 낙장불입 그리고 새로운 엔딩

이번 위안부 관련 한일회담에서 나온 표현 '불가역적(不可逆的)'. 이 단어의 뜻은 어렵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친근한 단어로 치자면 낙장불입(落張不入) 혹은 일수불퇴(一手不退)가 으뜸입니다. '돈을 줄 테니 자신의 잘못을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어찌 사과일 수 있을까요. '불가역적'이라고 꼭꼭 눌러 쓴 표현은 결국 회피하고픈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 그래서 자신의 과오를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칼 바드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순 없지만, 누구나 시작해 새 엔딩을 만들 수 있다." 일본이 타임머신 타고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독일처럼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한일 관계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의 2015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장불입, 그것을 어찌 되돌릴 수 있으리오. 2016년 더욱 열심히 뛰어 새로운 엔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유일한 방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뛰는 이유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뛰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늘 성찰하고 사유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가는 꽤 쓸만한 방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깊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걸어온 길

2015

- 01.02. 2015 겨울학기(1~2월) 개강 (68개 강좌)
- 02.27. 휴먼라이브러리 설명회 개최
- 03.03. 2015 1학기(3~6월) 개강 (163개 강좌)
- 03.17. 2015 놀이터프로젝트 따로 또 같이 시작
- 03.25. 워라도학교 개교식
- 04.01. 워라도학교 인성수업 2기 시작
- 04.23. 2015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 포럼 시작
- 07.01. 2015 여름학기(7~8월) 개강 (78개 강좌)
- 08.26. 아무나뮤직 창작 발표회
- 09.01. 2015 2학기(9~12월) 개강 (217개 강좌)
- 09.11. 2015 평생학습축제 참여 워라도학교
- 09.12.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평생학습축제
- 09.19.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매탄동, 고색동
- 10.15. 가을명랑운동회
- 10.31. 웰컴투수원 곡선동 개최
- 11.06. 2015 시민교육 심포지엄 개최
- 11.07.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누구나 축제
- 11.10. 수작업장 움직이는 부엌 프로젝트 시작
- 11.24. 더느린삶 네트워크파티 우리 만나
- 11.25. 북콘서트 강양구의 과학수다 진행
- 12.03. 도요새책방 새단장파티 동네 북BOOK 소리
- 12.05. 생활문화강좌 우리 함께 발표회
- 12.10. 영일중학교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
- 12.14.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성과 공유회 개최
- 12.15.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성과 공유회 개최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성과 공유회 개최
- 12.16. 워라도학교 워라도 하는 밤
- 12.17. 누구나학교 네트워크파티
- 12.22. 누구나학습마을 포럼 '다시보고 미래 찾기' 개최



2014

- 01.02. 2014 겨울학기(1~2월) 개강 (66개 강좌)
- 02.18. 휴먼라이브러리 심포지엄 개최
- 03.03. 2014 1학기(3~6월) 개강 (95개 강좌)
- 04.01.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2기 기본과정 시작
- 04.10. 수원 어린이 경제강사 양성 기본과정 시작
- 05.21. 액티브 시니어의 제2의 인생학교 시작
- 05.29.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2기 심화과정 시작
- 06.16.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시작
- 07.01. 2014 여름학기(7~8월) 개강 (73개 강좌)
- 07.14.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
- 07.21.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심화과정 시작
- 08.08. 인큐베이팅센터 추억디자인연구소 입주
- 09.01. 2014 2학기(9~12월) 개강 (127개 강좌)
- 09.04. 워라도학교 TFT 결성
- 09.15. 수원시민 인문대학 6기 시작 (7개 강좌)
- 09.19. 2014 2학기 길 위의 학교 시작
- 09.26.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개최
- 10.08. 2014 수원 교사인문학 아카데미 시작
- 10.20. 누구나학교 오픈파티
- 11.24. 제2의 인생학교 심화과정 강사교육
- 12.08. 인큐베이팅센터 소셜드림프로젝트 코코코 입주
- 12.09. 평생교육 유공 표창 수여
- 12.17. 워라도학교 총회
- 12.17. 영일중학교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
- 12.12. 누구나학교 네트워크파티

2013

- 01.02. 2013 겨울학기(1~2월) 개강 (46개 강좌)
- 01.10. 고등학생 봉사프로그램 누구나샘 1기 시작
- 02.12. 평생학습상담사 간담회 실시
- 03.05. 도요새책방 함께 읽기 모임 시작
- 03.04. 2013 1학기(3~6월) 개강 (90개 강좌)
- 03.14. 2013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 포럼 시작
- 03.19. 인큐베이팅센터 개관 및 라온경제 입주식
- 04.13. 도요새책방 1주년 기념행사
- 04.25. 2013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제작 일상학습 심포지엄 개최
- 04.30.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누구나학교 설명회 개최
- 05.05. 누구나학교 KBS 1대100 녹화 참여
- 05.07.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시작
- 06.01. 평생학습아카이브 '와', '누구나학교' 홈페이지 개설
- 06.08. 2013 필우 공원에서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다 개최
- 07.01. 2013 여름학기(7~8월) 개강 (88개 강좌)
- 07.09. 누구나학습마을 선정 및 학습코디네이터 활동 시작
- 08.20. 수원SDS 협동조합 프로그램 시작
- 08.24. 누구나학습마을 (능실마을, 화서1동, 매탄4동) 협약식 및 여는마당 개최
- 09.02. 2013 2학기(9~12월) 개강 (129개 강좌)
- 09.06. 도요새책방 시사토크 시작
- 09.09. 생태교통 2013 페스티벌 참여
- 09.11. 도요새책방 도시생활자 프로그램 시작
- 09.13. 2013 수원시평생학습축제 참여
- 10.17.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 수상
- 10.28. 학습관 누구나숲 조성
- 11.07. 누구나학습마을 (조원1동) 협약식 및 여는마당 개최

2012

- 01.03. 2012년 겨울학기(1~2월) 개강(29개 강좌)
- 01.10. 청소년인문학 시작
- 02.22. 담쟁이문화살롱 프로그램 시작
- 03.05. 2012년 1학기(3~6월) 개강(81개 강좌)
- 03.09. 수원 재무관리사양성사업 협약 체결(사회적기업 에듀머니)
- 03.14.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창간호 발간
- 03.22. 수원시민인문대학 협약 체결(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 03.27. 수원모금전문가학교 시작
- 04.03. 수원재무관리사 양성과정 시작
- 04.06. 수원시민인문대학 시작
- 04.16. 누구나학교 협약 체결(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 04.19. 수원 평생학습 실무자 네트워크 와글와글포럼 개최
- 04.21. 시민사회자료관 도요새책방 개관
- 04.25. 시민사회자료관 도서기증 및 관리 협약(박원순 서울시장)
- 04.28. 길 위의 학교 시작
- 05.13. 해외사례 및 선진기관 벤치마킹(영국)
- 06.01. 2012 누구나 학교 개강(23개 강좌)
- 06.09.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시작
- 06.21. 시민사회자료관 '시민광장' 인문학 강연 시작
- 07.02. 2012 여름학기(7~8월) 개강(51개 강좌)
- 08.2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협력사업 수원 교사인문학 아카데미 시작
- 09.01.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수원시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외)
- 09.02. 2012년 2학기(9~12월) 개강(99개 강좌)

2011

- 04.06. 수원시평생학습관 운영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 준공
- 07.21. 수원시평생학습관 위탁운영사업자 선정(희망제작소)
- 09.01. 수원시평생학습관 운영 시작
- 10.10. 2011년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시작(29개 강좌)
- 10.18. 학습상담실 운영 시작
- 10.24. 인문학 북카페 '카페담쟁이' 운영 시작
- 10.25.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시작
- 10.28. 수원시평생학습관 개관
- 11.02. 2011 수원시민인문대학 시작
- 11.05. 수원 소셜디자인스쿨 시작
- 12.06. 2012년 겨울학기(1~2월) 수강생 모집 시작(29개 강좌)
- 12.20. 평생교육기관 One-Day Workshop

숫자로 보는 2015년

허브 네트워크				평생학습 싱크탱크					
평생학습마을만들기 누구나학습마을 	3 마을	239 프로그램	6,788 참여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26 발행	8,581 구독			
찾아가는학교 경제교실, 대단한 교실, 영상앨범제작교실 	126 강좌	3,062 참여		 평생학습아카이브(웹)	2,891 DB	420 일평균 접속			
일상 네트워크 사업의 새로운 모델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1 개최	143 참여	10 추진기관	 시민교육 심포지엄	1 개최	183 참여			
수원지역 평생학습 기관장 네트워크 모임	4 진행	54 참여		 매뉴얼, 보고서, 자료집	4 제작				
수원평생학습네트워크 와글와글포럼 	5 진행	89 참여	17 추진기관	<div style="background-color: #6a3d9a; color: whit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시민주도 평생학습 </div>					
학습 및 행사를 위한 공간지원 	176,880 (일평균 485명 이용)						 누구나학교 및 누구나쌤	152 강좌	936 참여
평생학습종합정보망 통합웹사이트 및 학습상담 	717,562 통합웹사이트 이용	20,143 학습상담실 이용					 학습동아리 및 함께읽기모임	68 모임	1,040 참여
				 인큐베이팅 사업	4 팀(단체)	33 참여			

**학기별
교육**

개설강좌 **400**
수강인원 **11,192**

인문교양

시민인문학, 예술인문학, 교육학세미나, 명사특강, 교사인문학, 마을열린극장, 말랑말랑 시사토크, 함께읽기모임, 읽고 토론하기, 북콘서트, 도요새 특강

83 강좌
4,354 참여

삶의 기술

막걸리고실, 평화가 깃든 밥상, 식초교실, 도시양봉가, 한방건강교실, 데일리로잉, 생활목공 워크숍, 나무꾸는 생활, 움직이는 부엌

28 강좌
603 참여

시민리더

위라도학교, 월담, 우리들교실, 누구나쌤, 누구나학습마을 주민리더교육, 시민기자학교, 놀이터 프로젝트, 인큐베이팅센터 컨설팅

67 강좌
2,573 참여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엑셀, 작은 회사를 위한 브랜딩 워크샵, 독립 출판을 위한 인디자인 워크샵, 일상 스마트폰 처방전, 기획의 달인,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34 강좌
588 참여

지역특화

길 위의 학교, 마을 인문학

6 강좌
170 참여

사회통합 및 어린이·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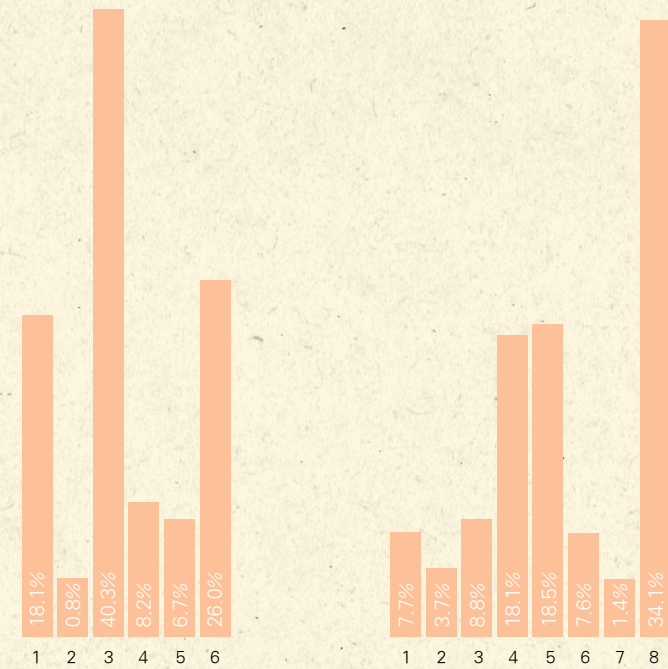
영어 및 컴퓨터 기초, 장애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57 강좌
1,028 참여

생활문화

외국어, 음악, 건강체육, 사진, 글쓰기, 미술

125 강좌
1,876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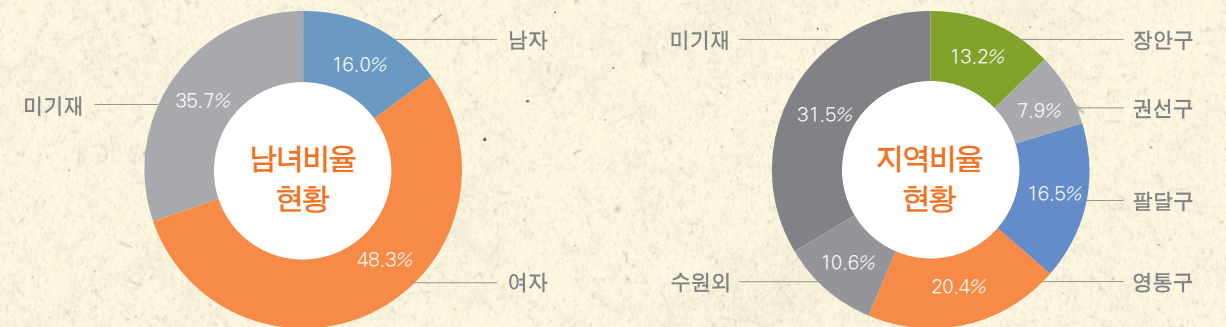


주제영역별 강좌 현황

- 1 인문교양
- 2 지역특화
- 3 시민참여
- 4 직업능력
- 5 사회통합
- 6 문화예술

연령비율 현황

- 1 20대 미만
- 2 20대
- 3 30대
- 4 40대
- 5 50대
- 6 60대
- 7 70대 이상
- 8 미기재



2015

주요사업

시니어, 새로운 인생을 열다 _ **뽕라도학교**
마을과 사람이 함께 자란다 _ **누구나학습마을**
이제, 시민교육이다 _ **심포지엄&시민교육포럼**

시니어, 새로운 인생을 열다 뽀라도학교

4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이 열정 가득한 눈빛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다. 이름하여 '뽀라도학교'. 뽀라도학교는 100세 시대를 맞이한 시니어들에게 배움과 활동,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베이스캠프다. 은퇴 이후에도 3,40년의 삶이 이어지는 이른바 '반퇴(半退)' 시대를 맞아, 은퇴했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뽀라도' 할 일을 찾아해보자는 것이다.

뽀라도학교는 시니어들의 배움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고 흩어지는 대신, 동문회나 커뮤니티 등의 그물망을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북돋아주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데에 있을 것이다. 뽀라도학교를 통해 시니어들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와 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젊고 새로운 꿈을 꾸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필두로 한 중장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별다른 맞춤형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이 문제는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인 시니어들이 나서야만 한다. 결국 문제해결의 주체는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시니어일 수밖에 없으며 프로그램도 학습관 직원의 평균적 문제의식과 감수성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적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차에 작년에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인생학교>를 마련하였는데 프로그램 신청자들의 자기소개서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읽다 보니 다른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찾기 어려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 욕구를 숙주로 삼을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의 당사자주의' 그리고 '학습을 매개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 <뽀라도학교>라는 플랫폼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제2의 인생학교>(이하 인생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강좌 종료 후에도 동문회라는 그물망을 통해 연결시키고, 그것을 베이스캠프 삼아 다양한 액션과 경제적 활동을 하게 만드는 터전, 이름하여 <뽀라도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추상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물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고와 에너지가 소요되는데, 에너지의 양은 대개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아이디어의 복잡성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의 능력 문제이다. <뽀라도학교>의 경우 난이도가 높기도 할뿐더러 참고해서 따라 배울만한 기존 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고난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제3섹터 업무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별로 없는 주체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1년 여의 물화과정은 그야말로 간난신고요 고난의 행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KBS 1TV 특집다큐 "두 번째 인생, 배움으로 길을 찾다" (2015.11.28)

워라도학교의 경과

2014년 5월부터 한 달여 기간 동안 강의, 토론, 탐방, 워크숍 등으로 이뤄진 '인생학교'가 종료된 후 40여 명의 수료생이 동문회를 만들었다. 이후 동문회는 학습관으로부터 <워라도학교>를 제안 받아 10여 명으로 구성된 TF를 결성한 후 1박 2일 워크숍을 포함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가닥을 잡아 나가기 시작하였다. 살아온 이력, 사용하는 언어, 상이한 가치관과 태도, <워라도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이런 많은 다름 속에서도 결국 2014년 12월에 드디어 '워라도학교 창립 총회'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 때문이었다. 이후 2, 3기 '인생수업'(인생학교의 새로운 이름)를 통해 배출된 수료생 90여 명의 멤버가 모여 <워라도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워라도학교의 구성

<워라도학교>는 크게 3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클래스 :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과정의 단계

① **인생수업** : <워라도학교> 정회원이 되는 관문 형태로 연 2회 개최

전문 클래스 : 시니어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 심화과정의 단계

① **사회공헌/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이론과 사례, 현장 탐방 등 소셜 디자이너 양성

② **시니어 전문강사 양성과정** : 시니어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전문강사 양성

③ **우리들교실 강사 워크숍** : 실제 강좌를 개설할 멤버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

창작 클래스 : 시니어 스스로 만들어가는 배움과 나눔의 커뮤니티

① **월담** : 회원 스스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여 함께 배우는 공개강좌 형태

② **우리들교실** : 회원 스스로 강좌를 개설하여 지식과 지혜를 나눔

③ **커뮤니티** : 회원간의 교류와 활동의 장. 함께 식사를 하며 답소를 나누는 '삼식이 브런치', 마음맞는 사람끼리 배낭하나 매고 떠나는 '어디든 여행단'이 있다.

3개의 클래스를 통해 자신의 단계와 적성에 맞는 학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아이템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총 7개의 사업단 중 대표적인 것이 시니어의 인생 스토리를 이미지와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추억디자인연구소'이다. 영상에 관심 있는 회원의 제안으로 사업단이 구성되자마자 2014년 수원창안대회에 출전, 86개의 팀들과 겨뤄 당당히 3등을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 사업단은 출범 이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모임을 개최하면서 회원들의 단합과 성장을 도모하였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별도의 영상촬영 편집기술을 익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10여 명의 회원들이 차분히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복지관, 주민센터, 구민회관, 도서관, 학교 등지로 강의를 나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진 상담'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에서 워라도학교 운영까지

어느 날 이 사업단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봉투 하나씩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프로젝트나 강의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적립하여 매월 배당금 형태로 회원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참 감동적이었다. 노란 봉투 안에 들어있는 금액은 이전에 직장생활을 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매우 가벼웠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 참여하여 배우고 익혀 사회공헌을 하면서 받는 돈. 노동에 합당한 금액은 결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한발 더 나아가 이 봉투를 가족 모임에서 공개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만일 이런 말을 한다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지역사회에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나는 지금 참 행복해.”

만일 내 아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나는 빙그레 웃으며 등을 토닥여 줄 것이다. 또한 나이와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아이들. 이것만큼 확실한 자녀교육이 또 있을까?

<취라도학교>에는 자체적으로 선출한 교장을 비롯 기획/홍보/커뮤니티/국제교류/사업단지원팀이 존재하는데 매주 월요일이면 <취라도학교>가 입주해 있는 학습관 3층 인큐베이팅센터 공간은 교무회의 소리로 늘 시끌벅적하다. 평생학습관의 품과 손길이 많이 소요되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 이젠 자체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근육이 제법 붙었다. ‘인생수업’ 3기 교육의 경우 <취라도학교> 멤버들이 사전기획과 행사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들교실’의 경우 이젠 강좌의 양과 질 모두 확장되었다. 더불어 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컨설팅단을 고민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2016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내부 논의가 한창이다.

아직까지 ‘중년’이라는 단어에는 어깨 움츠린 자의 쓸쓸함만이 배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니어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의미성이 확산되어 나갈 때 그 평면적인 단어에 깊이와 입체감이 주조되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시니어’라 쓰고 ‘희망’이라 읽을 것이다.

글 정성원(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반퇴 후 뭘 할 것인가... 답 찾아주는 수원

중앙일보 (창간 50주년 연중기획 반퇴 시대)

지난 10월 12일, 강연이 이뤄진 수원시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학생들 모두 생각에 골몰해 있다. 일부는 볼펜을 입에 물었다. 과제는 ‘나의 사명 진술문’을 쓰는 것. 앞으로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적어보는 시간이다. 대학 직원으로 일하다 지난 8월 말 35년 만에 은퇴한 이병근(60)씨는 “생각해 보니 은퇴 준비를 한하면서도 막연히 먹고 살 생각만 했지, 내가 어떤 삶을 누릴 것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더라”고 했다. 한참 만에 이씨가 적어낸 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좋은 일 하고 싶다”는 식이다. ‘나의 사명 진술문’을 지도하는 컨설팅 업체 ‘아그막’의 이창준(51) 대표는 “처음엔 누구나 막연한 생각만 갖는다”며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 걱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취라도학교>에선 이런 식으로 두 달간 11번 강의를 들으면서 반퇴 이후의 길을 잡아간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깨닫도록” 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연구해 만든 방식이다. 올 3월 개교해 지금까지 2기수 70명이 거쳐갔고, 지금 3기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강의료는 두 달에 2만원. 강의 시간은 불규칙하다. 시간이 많은 반퇴자들이라 강의실이 빌 때 모인다. 내용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철학적인 것을 비롯해 재산 관리, 나에게 맞는 사회봉사활동 찾기, 아이디어 사업 꾸리기 등이다. 실제로 이종림(60)씨 등 7명은 ‘추억디자인연구소’란 사업단을 차렸다. 살아온 삶, 앞으로의 삶, 가족들의 모습을 보기 좋게 정리해 보고자 <취라도학교>에서 디지털 영상앨범제작 기술을 배웠던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했다.



이씨가 대표를 맡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영상 앨범을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강사로도 활동하며 수입을 올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다 5년 전 퇴임한 이영찬(65)씨는 “여기 와서야 아내와 내가 꿈꾸는 인생 2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봉사’를 인생 2막의 목표로 삼았던 그는 퇴임 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가입해 가족과 떨어진 채 필리핀에서 4년간 봉사활동을 했다. 하지만 올 2월 교직을 그만둔 부인 윤점로(63)씨는 휴식을 원했다. 이영찬씨는 “앞으로는 부인이 원하는 대로 여행을 하면서 때때로 봉사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1기 졸업생 일부는 <뫼라도학교> 강사로 활동 중이다. 교장도 1기 졸업생이다. 지난해 2월 은행에서 퇴직한 김정일(59)씨다. 그는 “‘뫼라도 해보자’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 학교 자체를 잘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15. 10. 14

수원시 평생학습축제를 시니어들의 에너지로!

지난 9월 11~12일 행궁광장에서 열린 ‘2015 수원시 평생학습축제’에 <뫼라도학교>가 참여, 중년 이후의 삶과 배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뫼라도학교 우리들교실과 6개 시니어사업단이 각자의 사업계획과 그간의 활동 경험 일부를 선보였다.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강의 형태로 나누어온 우리들교실은 축제의 성격을 고려해 정리수납 강좌를, 사회공헌 활동이 중심이 되는 시니어 사업단에서는 체험과 전시 형태로 각자의 사업을 소개했다. 스마트기기로 영상앨범을 만들어주는 ‘추억디자인연구소’에서는 관람객의 사진을 촬영해 즉석에서 특별한 액자를 만들어 주었고, 수원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정을 돕고자 만든 ‘한중행복’에서는 장명루만들기, 시니어카페를 준비중인 ‘달보드레’와 상



수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좋은물착한물’에서는 각각 대륙별 커피 맛보기와 수도물 시음 체험을 진행하였다.

12일(토) 오전에는 “청년과 노년, 세대와 국경을 넘어 만나다”라는 주제로, 미국의 프린스턴대학교 교양수업에 서울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들이 한국어 강사로 참여한 사례가 미니세미나로 진행되었다. 프린스턴대학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하고, 서울시립 용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부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조용민 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단지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니어 활동을 넘어서, 청년과 노년이 경계 없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에 모두 박수를 보내며 자극을 받았다.

“시니어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는 주제로 <뫼라도학교> 성원들은 물론 관객들을 참여시킨 플래시몹은 축제의 분위기를 이끌며 큰 인기를 끌었다. ‘액티브’ 시니어란 말을 직감하게 한 집단 댄스의 괴력은 ‘시니어컬처클럽’의 작품. 시니어들의 활발한 문화적 활동을 위해 클래식부터 대중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험과 봉사를 꿈꾸는 사업단이다.

플래시몹을 마치고 땀을 한껏 흘리고 돌아온 <뫼라도학교>의 김정일 교장은 “뫼라도학교의 회원인 시니어 스스로 이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했다. 축제를 통해 팀워크를 만들어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하면서 벅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찾아 나선 시니어들 한 명 한 명의 에너지가 전파되는 시간이었다.

지금 중장년, 시니어 세대가 어떤 시니어 상(像)을 만들어주느냐가 미래 세대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이들이 만들어낸 인생2막의 다양한 삶의 양상이 같은 시니어는 물론 젊은 세대들에게도 확인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뫼라도학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출처 : 경기포커스 2015. 9. 18



우리들교실, 시니어들의 전문 지식과 인생 경험을 나눠요

전 국어교사로 은퇴하신 전경월 님, 일본 동경에서 4년간 거주하며 활동한 박현자 님, 뒤늦게 영화제작에 참여하면서 영상을 가르치는 김애숙 님, 취미로 사진을 찍으며 세계여행을 하는 김범순 님. 이들은 현재 <뭐라도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 전문강사다. 나름의 경험과 지식을 쌓고 시니어 세대를 맞이한 분들이다.

<뭐라도학교>는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나누고, 뭐라도 즐기고, 뭐라도 행하자!”라는 모토 아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시니어들의 베이스캠프다. 인생수업을 마친 분들이 함께 모여 시니어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 후 활동하고 있다.

시니어는 전문 지식뿐 아니라 경험이라는 큰 무기를 지닌 세대다. 하지만 경험을 자산가치가 되도록 시스템화시켜야 한다. <뭐라도학교>의 멤버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만들고 스스로 강사가 되어 나눔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금껏 <뭐라도학교>에서는 26가지 강좌가 열렸다. 제목만 들어도 흥미진진하다. 나의 브랜드 명함 만들기, 사진과 함께 하는 세계여행, 기분 좋은 정리수납 자격과정, 중국어 왕초보 교실, 무비 메이커를 활용한 편집 배우기, 만화로 배우는 일본어, 사진에 수다를 엮다(포토에세이 쓰기), 명상과 함께 하는 휴 여행 등이 그것이다.

우리들교실 강좌 중 인기 프로그램의 하나인 정리수납 자격과정은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한영순 님이 진행한다. 정리수납 컨설팅 외에 살림 코칭, 정리수납 전문가격을 지닌 분이다. 정리수납의 이해, 우리집 주방, 냉장고, 침구, 옷장 정리 등을 체계적으로 배

울 수 있다. 옷장수납, 옷 종류별 개는 방법 등은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정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효약 같은 수업이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사진과 함께 하는 세계여행’ 강좌는 사진작가이자 여행가인 김범순 강사님의 강의다. 킬리만자로, 백두산, 일본 북알프스, 안나푸르나, 키나바루, 린자니, 로키, 유럽 알프스 3대 미봉... 가보지 않은 곳이 없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다. 작년까지는 경기도 교육청 정직으로 근무한 공무원으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전문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직접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사진으로나마 세계여행을 한듯 감동을 준다. 중국 상하이에 거주한 경험, 일본 동경에서 거주한 경험 등으로 일본어나 중국어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다. 우리들교실의 강좌는 일반 문화센터나 도서관, 평생학습관에서 배울 수 없는 소소하고 깨알같은 재미가 있다.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내용이기에 편안하기도 하다.

앞으로 <뭐라도학교>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강사들은 각자의 역량과 흥미에 맞게 사업단을 꾸려 나가실 계획이라 한다. 이미 사업단을 꾸려 활동하는 팀도 있다. 가장 활발한 팀은 ‘추억디자인연구소’이다. 나름 디지털기기 활용을 잘 하는 50대부터 70대까지 7명의 구성원들이 활동한다. 장롱 속 빛바랜 사진이나 자료들을 정리하고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수원시 창안대회에서 TOP5 안에 들기도 했다. 추억디자인연구소의 이종림 대표는 ‘추억디자인연구소’를 착한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으로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한다. 젊고 활기차게 노후를 맞이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재미난 놀이터 같은 <뭐라도학교>! 수원은 젊은 도시, 배움의 도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시니어들의 평생교육 사업 <뭐라도학교>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점점 좋은 반응을 얻고 발전하길 바란다.

글 김소라(시민기자)

마을과 사람이 함께 자란다 누구나학습마을

누구나학습마을은 지식, 경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누구나 강의를 열고, 배움의 기회를 얻고 싶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누구나학교를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의 여러 기관 단체 등과 마을에서 실현하는 프로젝트이다. 주민들의 다채로운 경험과 재능을 발굴하고 마을의 다양한 공간을 살아있는 교육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누구나학습마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나학습마을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계기로 이웃을 알게 되고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과 함께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내고, 마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같이 도모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누구나학습마을에 사는 누구나 내 나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고 그것을 이웃으로부터 지지받는 것, 이것이 누구나학습마을의 꿈이다.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학교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조원1동 주민센터, 조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조원지역아동센터, 드림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눔녹색가게, 마뚬나뚬가스, 산내읍도서관, 대추동읍도서관, 새마을문고, 휴카페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화서1동 주민센터, 화서1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영광문고회, 화서신용협동조합, 화서동성당 창조보전나눔터 마중물, 수원 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 푸른숲(아)문화공간추진위원회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매탄4동 주민센터, 매탄4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빛지역사회연구소, 산샘어린이공원, 웃말노인정, 웃말노티나무, 백합비누, 선가보쌈, 커빈커피, 아랫말노인정

누구나학습마을, 3년을 다시 보다

사업의 개요 및 성과

- 사업명** 경기도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누구나학습마을)
- 기간** 2013년 7월 ~ 2015년 12월(시존1)
- 장소**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장안구 조원1동, 팔달구 화서1동
- 주최**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평생학습관
- 주관** 매탄4동 주민센터, 조원1동 주민센터, 화서1동 주민센터, 수원시평생학습관
- 내용**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으로 마을 만들기

1차년도 (씨앗기) 2013.7~2014.1	2차년도 (싹트기) 2014.3~2015.2	3차년도 (성장기) 2015.3~2015.12
71개 강좌, 92회 1,225명 참여	144개 강좌, 376회 4,881명 참여	239개 강좌, 568회 6,788명 참여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누구나학습마을. 듣기만해도 정감 가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첫째는 마을에서 맘껏 놀았던 어릴 적 기억 때문이고, 둘째는 여성 단체 활동을 하면서 풀뿌리 지역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다른 사안에 밀려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활동을 해보기로 결심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일정한 시간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코디의 역할에 깊숙이 빠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성과에 매몰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일이라는 것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은 마을 사람 누구나 즐거운 학습을 통해 생활을 공유하면서 정감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하기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노세노세 웃으며 놀아보세

처음엔 도대체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 모르겠더군요. 우선 마을 리더들의 릴레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나서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다음은 사람들

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경로당이에요. 아랫말의 경우 화투 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화투춤을 만들어 활기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했어요.

아랫말 느티나무, 웃말 느티나무

매탄동은 대대로 살고 있는 토박이들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에요. 1500년이 넘는 마을이지만 대체로 재개발이 되었고 옛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죠. 마을 역사의 유일한 증거가 아랫말과 웃말의 느티나무일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 나무를 기준으로 어디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세요. 나이든 느티나무 두 그루는 점점 그 수가 줄어가는 토박이 어르신들을 닮았어요.

다문화 수다방, 당당한 한 사람의 주민으로

우리 동네는 이주민들이 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경계를 해요. 그래서 이 주민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강좌를 열었어요. 뭘 하고 싶은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죠.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당당한 한 사람의 주민으로 누구나학습마을에 참여하길 바랐는데, 취업한 사람들도 많고, 이사를 가기도 해서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언젠가 다른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8학년 미술시간

‘8학년 미술시간’은 아랫말 경로당 어르신들이 2년이 넘게 참여하고 계신 활동이에요. 산드래미 마을(매탄4동)의 4대 성씨를 가진 집안의 며느리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여자고 노인회장님만 남자세요. 이 며느리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작은 공연도 하는데 올해에는 드디어 무대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강사가 따로 있어요. 누구나 참여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해도 어르신들에게는 아직 쉬운 일이 아니지요. 즐겁다고 하시다가도 항상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이 오면 그쪽으로 가세요. 약장사한테 밀려서 누구나학습마을은 방학하자고 하시죠. 가끔 할머니에게 뭐 잘하냐고 물으면 잘 하는 게 없다고 말하시는데, “어르신 국수 잘 삶잖아요” 라고 다시 물으면, “그건 잘 하지”라고 말씀하세요. 어르신들도 계속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강사도 나오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글 류명화(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로 마을의 학습 공간이 조성되어 조금 더 쉽게 이웃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배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문고와 작은 도서관 등에서도 이웃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배움의 공동체가 피어나는 모습이 참으로 기쁩니다. 사실 처음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가 되어 교육을 받고 마을에 배치되었을 때, 설렘과 함께 걱정도 많았어요. 역사나 순탄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풀리지 않는 여러가지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여주는 주민들과 활기찬 인사를 하지요.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만으로도 코끝 찡한 감동을 느낍니다. 다른 마을보다 우리 조원1동은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지만 한 명의 주민이라도 누구나학습마을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조원1동에 많은 학습 공동체가 있어 코디네이터 없이도 활기찬 마을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쁜 하루를 보낸답니다.

대추골 녹색가게, 그리고 문이 열린 동네 공간들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긴장도 많이 했고요. 동장님이 도와주셔서 부녀회를 통해 녹색



가게에서 첫 강의를 열었죠. 이후로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펼쳐졌어요. 산내음도서관, 대추동이도서관, 조원주공 2단지 안에 있는 탁구장, 휴카페...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마을 전체 주민들을 위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드림지역아동센터, 누구나 선생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항상 받는 데 익숙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강사가 되어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입장이 되어본 거예요. 그날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했어요.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수업같지 않은 수업

배우러 왔다가 강사가 되고, 뭐든 하다 보면 수업이 되는 거죠. 예전엔 재능기부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공유라고 말해요. 초등학교가 중학교를 가르치고, 동네 언니가 동네 동생이나 옆 동네 친구를 가르치고, 어린이가 어른을 가르치고... 그런 모습이 조원1동에서는 흔한 풍경이 되었어요. 누구나학습마을 강사 중에는 전문강사들도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수강료를 받지 않으니 신경 쓰는 일 없이 편하게 수업했는데, 학습자와 더 긴밀하게 아는 것을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축제

2015년 11월에 누구나학습마을 축제를 열었어요. 마을에서 흔히 열리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소소하게 우리가 직접 만드는 축제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기획회의를 9번이나 했어요.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험도 없던 우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싸우기도 하고, 뭔가를 얻어냈죠. 돌이켜보니까 대단했어요.

글 김지영(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화서1동의 특징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 화서신용협동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다문화도서관 영광문고회 새마을부녀회 등 9개 단체가 누구나학습마을 운영위원회로 참여해, 협력기관으로서 누구나학습마을을 함께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을의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주민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강좌를 통해 마을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요.

그동안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습마을의 시작을 알리는 <여는 마당>을 개최했고, 사업에 공감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의 여러 리더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여러 강좌를 통해 화서1동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나는 가르쳐 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며 손사래를 치시다가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해 줄 수 있다는 분들이 강사로 나서 주십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놓쳐버린 지난 강좌를 다시 해 달라고도 하시고, 다음번에는 이리저리한 것을 배워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을 함께하며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혜가 숨어 있기도 하고, 돈 주고도 못 배울 경험이 우러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부지런히 공부 해놓은 지식이나 재주를 이웃 사람에게 배우며 좋은 이웃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마중물, 봉숭아 꽃물들이기

마중물은 화서성당의 마을공간입니다. 지역축제 때 누구나학습마을에서 봉숭아 꽃물들이기를 했었는데 인기가 많아 재료가 금방 바닥이 난 거예요. 당황했었는데, 동네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자기 집에서 금방 재료를 날라오시더군요. 이게 마을 일이 가지는 장점이 아닐까요?



새마을문고에서 아빠가 알려주는 PPT

아이들이 하교하기 전 오전엔 문고가 비어있어요. 누구나학습마을을 위해서 그 오전 시간을 내 주었죠.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공공할 때는 ‘그날 우리 남편이 시간이 된대’ 라며 남편에게 컴퓨터를 돌려 보내는 이웃이 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아빠가 알려주는 PPT.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도 해주고, 인기가 짱이었어요.

화서신협이 아이들 선생님

화서신협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을 열기도 했어요.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었죠. 어르신들께 오늘은 한참 어린 이 친구들을 꼭 선생님이로 대접해주셔야 한다고 했지요. 대신에 어린 선생님들은 앞으로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꼭 큰소리로 인사하기로 하고요.

주민자치센터, 야간요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미 주민 대상 수업이 열리고 있잖아요. 누구나학습마을이 경쟁하려는 것은 아닌데,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니 묘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우선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열거나, 강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지요. 한번은 주민센터의 요가수업이 폐강될 위기에 있었는데, 누구나학습마을에서 야간 요가 열린장좌를 열면서 주민센터 수업을 홍보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상생하는 법을 배웠어요.

비탈비탈 소박한, 마을의 길

3년 동안 멧모르고 화서1동을 왔다갔다하면서 길을 냈어요. 비탈비탈하고 쾌적하지도 않죠. 3년을 지내면서 마을에선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구나, 알아가게 되었어요. 대단히 큰 길, 멋진 길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 오는 날에도 질퍽거리지 않고 유모차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 소박한 길이 생기면 좋겠어요.

글 신은미(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누구나학습마을 3년, 성과와 과제

마을의 변화는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마을의 변화는 곧 사람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학습의 가장 큰 결과물은 기분 좋은 가능성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일 것이다. 학습을 통해 마을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길 기대하며 시작한 누구나학습마을이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결실을 돌아본다. 먼저 코디네이터 3명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없이 사업을 운영해가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마을과 주민들은 변화무쌍하다. 마을 안에서 경험한 코디네이터의 회노애락이 지금의 누구나학습마을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열정을 다해 함께 해 오신 코디네이터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한 누구나학습마을을 기획하고 지원한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성과

마을 특성별 누구나학습마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을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찾고 실천하였다. 마을마다 역사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다. 마을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발전시키고 숨겨져 있는 재능들을 발견하여 누구나학습마을을 풍성하게 하였다. 마을 곳곳이 학습의 장으로 발견되고 활용되었다.

주민들이 서로 배운다는 생각이 구체화되고 실행되었다

배운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선생과 학생의 신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누구나학습마을을 통해 누구나 선생이 되고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마을에서 값없이 배움을 나누는 경험은, 나눔이 살아나는 마을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학습의 주제들이 살아났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지식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문적이거나 고급스러운 기술이나 지식이 배움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고추장을 담그는 것, 핸드폰을 다루는 것, 멋진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등 소소한 일상의 주제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든다. 삶과 연결된 배움,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이 살아있는 배움이다. 누구나학습마을은 경험에서 체득된 것들의 소중함을 주민 스스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나누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학습이 배우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사귀는 장이 되었다

같은 또래의 엄마들끼리, 선후배 아줌마들끼리, 아이들과 아빠가, 청소년들과 어르신 등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에서 함께 만나 배우고 소통하고 사귀는 장이 되었다. 만남을 통해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하였다. 누구나학습마을 성공의 열쇠는 주민간의 소통과 만남을 통한 관계형성에 있다.

누구나학습마을이 지속가능하도록 주도적인 활동을 수행할 주민리더들이 발굴되었다

지속적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 발굴된 주민들과 누구나학습마을을 통해 경험하고 만난 주민들을 리더로 양성하는 교육을 수행하였다. 주민 리더들의 발굴과 확대를 통해 누구나학습마을의 지속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과제

마을별 누구나학습마을을 주도할 수 있는 주민조직이 필요하다

마을 일을 주민 스스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주민조직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은 다양한 마을 일을 하고 있는 기존의 주민 리더그룹들이 누구나학습마을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새롭게 마을에서 찾은 주민들을 모아 학습마을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세우고 장기적인 과제로 학습마을을 주도할 조직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집중한다

마을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습의 많은 경우가 취미나 교양, 일상적인 필요에 관련된 것이 많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교육의 주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마을에서 발굴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앞으로는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꼭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스스로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학습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일), 환경, 생활정치 등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학습의 주제로 다뤄지지 않는 주제들도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소외된 주민들과 학습을 통해 만난다

마을 안에 소외된 주민들이 많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존재는 학습으로부터도 소외된 존재이다. 마을단위에서 그들이 고립되지 않고 마을 안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손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학습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글 김미영(누구나학습마을 컨설턴트, 감마센터 대표)

이제, 시민교육이다 심포지엄 & 시민교육포럼

한국사회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고민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확장되었으나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논의 규모나 내용 모두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전국 평생학습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교육 공부모임'을 꾸려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5년에는 공부모임 안에서 논의한 내용의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시민교육 심포지엄>을 진행했으며, 또 하나의 트랙으로 지역 내 시민교육을 고민하는 중고등학교 교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학 시민교육 교강사와 함께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을 진행했다. 각 주체별로 시민교육에 대한 관점과 고민, 실천 방안은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공부모임, 심포지엄,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모여 현실을 점검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16년에는 이렇게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주제를 도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평생학습계에 시민교육 담론과 실천에 대한 고민을 확산시키다 <시민교육 심포지엄>

평생학습 현장 전문가들의 '시민교육 공부모임'

평생학습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 실무자들은 시민교육에 대해 생각할 때 체증과 갈구가 있지 않았을까. 뭔지 모를 답답함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밖으로 표출됐다. 더 이상 방관하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평생학습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누고 시민교육 공부모임을 위한 예비모임을 가졌다. 이 때 현장 전문가들은 ①평생학습이 말하고 지향하는 시민, 시민교육, 시민교육의 목표 및 기존 평생학습이 가지고 있는 시민교육에 대한 개념과 이해 등에 대한 논의 및 정리가 필요하다 ②평생학습이 프로그램에 갇혀 일상의 학습과 괴리되어 있다 ③담론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부모임이 7월에 시작됐다. 공부가 단지 담론으로서가 아닌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우리들이 학습 과정에서 일정한 내용을 담보하게 되면 이후 여러 단위의 현장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민교육 심포지엄 개요

- 주제** 패러다임의 전환,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교육
- 일시** 2015년 11월 6일(금) 14시 ~ 16시 30분
-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
- 주최** 수원시평생학습관
- 공동주관** 광명시평생학습원, 군포시평생학습원, 남양주시평생교육원, 수원시평생학습관, 은평구평생학습관, 평생교육실천협의회
- 후원** 한국평생교육학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세부내용	시간	주제/내용	강사
기조강연	14:00-14:30	시민교육의 일상화 : 의미, 조건 및 과제	김민호(제주대학교 교수)
발제	14:30-15:30	[주제1]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본 시민교육	박현규(서울생명의전화 교육실장)
		[주제2]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김미윤(은평구평생학습관장)
		[주제3] 시민교육, 어디까지 해봤니? 시민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	김미란(광명시평생학습원장)
		[주제4] 시민교육, 변화의 조건을 구축하자	정성원(수원시평생학습관장)
질의응답	15:40-16:30	문자로 참여하는 현장 질의응답	



시민교육 심포지엄 리뷰

2015년 11월 6일(금)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시민교육 심포지엄 : 패러다임의 전환,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교육>이 열렸다. 기조강연자인 김민호 교수(제주대)는 ‘시민교육의 일상화 : 의미, 조건 및 과제’를 주제로 학습과 사회가 괴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통해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학교나 정형화된 교육기관을 벗어나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습 연계망을 통한 공동체적 활동을 강조, 일상과 맞닿아있는 구체적인 주제를 시민성 학습의 내용으로 삼아 경험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상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시민교육으로 용인지역의 문탁네트워크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인문학 학습모임에서 시작한 것이 공동체적 일상학습으로 성장한 과정을 소개했다.

박현규 실장(서울생명의전화)은 2015년 5월 평생교육 담당자 203명이 응답한 시민교육 의식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현규 실장은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91.6%)은 높지만 절반 이상(58.7%)이 현재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시민교육은 10% 이하라고 밝혔다고 말하며,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현실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가치 재정립(17.0%)과 국가 및 진흥원의 관심과 노력(16.8%),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0.7%)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미윤 관장(은평구평생학습관)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를 주제로 은평구 시민들의 경험과 변화를 개인 및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정리했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은 자기계발이나 자아실현 등 개인적 욕구에서 출발했지만 관계를 형성하고, 우연한 계기로 만난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감수성을 체득하고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며 활동하는 것 등을 통해 시민으로 성숙해진다고 말했다. 김미윤 관장은 단순한 하나의 프로그램 참여나 활동을 통해 단시간 안에 변화된 사람은 없었으며,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평생교육의 환경과 방법이 필요하며, 관심을 가지고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미란 원장(광명시평생학습원)은 시민교육 방법론에 대해 발표하면서 시민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무자들의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월드카페, 타운홀 미팅 등 새로운 시민교육 방법론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실무자 자신이 프로듀서로서 교육의 전체 맥락을 짚어내고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애초의 기획 관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무엇이나 라는 정의나 경계 짓기 등의 거대담론에서 벗어나야 하며 빨리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성을 버리고 개인의 역량 개발이나 행복 추구의 관점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원 관장(수원시평생학습관)은 시민교육의 목표를 사람의 변화에 두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적 자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노력과 자원의 투입이 선행되어야만 의미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시민교육이 교수자 중심의 일방향 전달 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시민교육은 대화와 토론, 삶의 현장,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를 위한 몇 가지 요인으로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 지속성, 학습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를 촉진해나갈 수 있게 하는 상호성, 학습활동가로서 실무자들이 가져야 하는 주도성과 교수자나 학습자를 이끄는 촉진성을 말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조직과 활동가 개인의 노력과 대처 방안을 정리함과 동시에,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점검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뛰어 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포지엄 발제 중에 청중들로부터 문자로 질문을 받아, 열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시민성은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문학 모임들을 일상적 시민교육의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시민교육은 ‘시민의 삶과 관계되는 교육’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등 시민교육의 개념과 철학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생계와 생존으로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들에게 학습의 의미를 어떻게 느끼도록 할 수 있는지, 어릴 때부터 정답을 맞히는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시민교육의 일상화가 가능한 일인지, 개인적 욕구해결로 인한 학습자 만족을 시민교육 사례라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취미나 여가활동 등을 원하는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시민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등 현실과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갈등을 담은 질문도 눈에 띄었다.

특히 평생학습 현장의 열악함 속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은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간 이용객이 10~20만 명에 이릅니다. 5년째 접어들니 이제까지 거쳐 간 분이 족히 백만 명은 될 것입니다. 이들 중에 멋진 교양인은 많아도 성숙한 시민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거냐, 그럴 순 없습니다. 몇 년, 아니 몇 십 년 후에는 분명히 상당한 변화를 이뤄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안 바꾸면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단호한 답변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일축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발제와 질의응답 내용으로 볼 때 시민교육 일상화의 방향과 방법론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평생학습 및 시민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시민교육에 대해 더 생각해 보고 공부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지속적인 관심사로 가져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자리였다.

글 이보라(수원시평생학습관 사업3파트장)

지역에서 시민교육을 논하다,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

시민교육포럼 개요

일시	2015년 10월 8일 ~ 11월 26일(목) 19시 ~ 21시	
참가인원	32명(발표/토론자 외 16명), 개근자 4인	
내용	(집담회) 지역과 시민교육	시민교육 정치 지형과 법제화
	학교시민교육 -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시민교육과 일상활동의 연계 사례
	지역 시민교육의 연계성 강화 방안	토론과 지역 공론장
	시민교육 교재 및 자료분석	지역 시민교육 커리큘럼 시안

시민교육포럼 리뷰

2015년 시민교육과 관련한 논의는 시민사회나 자치단체, 학교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며 일종의 트렌드로 떠올랐다. 이는 현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위기 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에서 시민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중고등학교 교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학 시민교육 교강사와 함께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을 준비했다. ‘시민의식이 교과목으로 교실 안에서만 이뤄져서 뭐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상 속으로 시민교육이 들어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상을 발견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포럼이 기획되었다.

10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주차의 포럼이 진행되었다. 첫 시간은 수원여성회 전 대표이자 대학에서 시민교육을 가르치는 임혜경 교수가 포문을 열었다. 여성회 활동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시민의식,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도나 교과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인 참여와 함께 새로운 삶의 양태를 만들어갈 때 활성화되는 것이라는 견해로 이어졌다. “지역과



일상의 이야기, 고민을 만나서 계속 떠들고 하면 그것을 통해 훈련이 되고 지역에서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의 포럼은 각자 자리에서의 고민과 질문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먼저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이 논의 되었다. 중고등학교 민주시민교과서 집필진이기도 한 유신고등학교 정경수 교사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직업을 이야기하는 학교의 현실에서부터 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박봉재 교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시민교육 과정과 교과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지식과 실천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더

나아가 삶과 행동을 어떻게 연결할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지역 시민교육 협력방안에 대해서 수원시평생학습관 정성원 관장의 발표시간도 있었다. 함께 연대해서 무언가를 모색할 때 의기투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자유학기제, 공유센터 등 구체적 사례를 얘기하고 협력 방식을 제시하였다.

삼일상업고등학교 허진만 교사는 ‘학생들과 어떤 질문으로 만날까’를 주제로 교과서를 분석했고 ‘인권교육 온다’의 이세훈 활동가는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교안을 모아서 그 안에서의 빛나는 점과 아쉬운 점을 살폈다. ‘빛 길’의 구성원으로 시민단체와 학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희망샘도서관 김성연 관장의 활동 소개와 토론도 이어졌다. 이관후, 조철민 박사를 초빙하여 한국의 정치지형과 시민교육, 시민교육 법제화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도 있었다. 시민교육의 일상 활동 사례로 환경운동연합의 온세미로와 한살림의 사례를 들어보는가 하면 지역 공론장을 주제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호 위원의 발표를 함께 듣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봉재, 이광훈 교수가 시민교육 프로그램 시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포럼은 마무리 되었다.

“시민사회와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여러 곳에서 시민교육을 고민하는 움직임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고민 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많은 배움이 있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의제의 도출보다는 기존 고민을 정리하는 자리였다는 것의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였다. 시민교육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과 시민사회라는 세 단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유하고 참여하고 이슈가 확산되는 것에 더 공을 들여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처음부터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의도는 좋으나 논의에 참여한 주체들이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학습한 것을 실현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다 다를 것이다. 서 있는 위치에서 실천은 다를 수 있지만 공유된 것 속에서 각각의 실천 방식을 찾아 실행해보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교육을 고민하는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모여 토론하며 ‘함께 이는 내용’을 만들어갔다는 점에서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5년 포럼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글 이재은(수원시평생학습관 사업2파트장)

통계로 보는 2015

프로그램 현황

개설프로그램 수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개설강좌	68개	163개	78개	217개	526개

주제영역별 프로그램 수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인문교양	17개(25.0%)	34개(20.9%)	5개(6.4%)	39개(18.0%)	95개(18.1%)
지역특화	0개(0.0%)	1개(0.6%)	0개(0.0%)	3개(1.4%)	4개(0.8%)
시민참여	9개(13.2%)	70개(42.9%)	27개(34.6%)	106개(48.8%)	212개(40.3%)
직업능력	4개(5.9%)	12개(7.4%)	6개(7.7%)	21개(9.7%)	43개(8.2%)
사회통합	8개(11.8%)	9개(5.5%)	9개(11.5%)	9개(4.1%)	35개(6.7%)
문화예술	30개(44.1%)	37개(22.7%)	31개(39.7%)	39개(18.0%)	137개(26.0%)
합계	68개(100.0%)	163개(100.0%)	78개(100.0%)	217개(100.0%)	526개(100.0%)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참여인원(실인원)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참여인원	2,061명	4,407명	2,077명	5,709명	14,254명

성별 참여인원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남자	412명(15.5%)	823명(20.8%)	437명(14.2%)	831명(13.9%)	2,503명(16.0%)
여자	1,073명(52.0%)	2,360명(58.1%)	1,214명(49.3%)	2,115명(39.5%)	6,762명(48.3%)
미기재	576명(32.4%)	1,224명(21.1%)	426명(36.5%)	2,763명(46.6%)	4,989명(35.7%)
합계	2,061명(100.0%)	4,407명(100.0%)	2,077명(100.0%)	5,709명(100.0%)	14,254명(100.0%)

연령별 참여인원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20대미만	229명(10.6%)	346명(5.0%)	378명(8.1%)	1,387명(8.0%)	2,340명(7.7%)
20대	96명(4.7%)	108명(4.4%)	72명(3.2%)	111명(2.9%)	387명(3.7%)
30대	192명(12.7%)	429명(10.1%)	135명(7.3%)	295명(6.7%)	1,051명(8.8%)
40대	411명(20.6%)	731명(23.5%)	354명(15.2%)	638명(14.5%)	2,134명(18.1%)
50대	413명(16.1%)	944명(23.2%)	578명(17.2%)	972명(17.2%)	2,907명(18.5%)
60대	182명(6.1%)	580명(10.6%)	316명(7.2%)	500명(6.7%)	1,578명(7.6%)
70대이상	41명 (0.3%)	130명(1.7%)	67명(1.6%)	141명(1.7%)	379명(1.4%)
미기재	497명(28.8%)	1,139명(21.5%)	177명(40.4%)	1,665명(42.4%)	3,478명(34.1%)
합계	2,061명(100.0%)	4,407명(100.0%)	2,077명(100.0%)	5,709명(100.0%)	14,254명(100.0%)

지역별 참여인원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장안구	329명(16.4%)	563명(13.6%)	317명(14.6%)	624명(10.7%)	1,833명(13.2%)
권선구	157명(9.0%)	433명(10.1%)	170명(6.6%)	413명(6.4%)	1,173명(7.9%)
팔달구	459명(16.6%)	847명(19.7%)	412명(18.8%)	724명(13.3%)	2,442명(16.5%)
영통구	385명(21.1%)	831명(24.1%)	421명(15.0%)	831명(19.8%)	2,468명(20.4%)
수원외	218명(18.3%)	521명(11.1%)	212명(8.3%)	571명(7.3%)	1,522명(10.6%)
미기재	513명(18.6%)	1,212명(21.4%)	545명(36.8%)	2,546명(42.4%)	4,816명(31.5%)
합계	2,061명(100.0%)	4,407명(100.0%)	2,077명(100.0%)	5,709명(100.0%)	14,254명(100.0%)

누구나학교 현황

누구나학교 개설강좌 수

구분	상반기(6월)	하반기(7~12월)	계
강좌 수	76개	74개	150개

누구나학교 수강인원

구분	상반기(6월)	하반기(7~12월)	계
수강인원	505명	393명	898명

온라인 이용 현황 (접속 건 수)

구분	홈페이지	누구나학교 / 아카이브	자료관 블로그	합계
1월	51,118	12,259	2,327	65,704
2월	54,030	9,515	440	63,985
3월	57,988	10,912	641	69,541
4월	45,551	10,370	544	56,465
5월	38,026	11,330	1,065	50,421
6월	45,372	14,006	741	60,119
7월	39,357	14,082	942	54,381
8월	48,767	14,261	2,119	65,147
9월	37,676	14,177	1,579	53,432
10월	36,977	13,447	2,167	52,591
11월	39,939	12,112 / 2,206	1,582	55,839
12월	52,702	12,705 / 1,869	2,661	69,937
합계	547,503	153,251	16,808	717,562
(일평균)	(1,500)	(420)	(46)	(1966)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구독현황

호수	발행일	구독인원	호수	발행일	구독인원
74호	01월 14일	8,052명	87호	07월 15일	8,743명
75호	01월 28일	8,121명	88호	07월 29일	8,782명
76호	02월 11일	8,144명	89호	08월 12일	8,854명
77호	02월 25일	7,876명	90호	08월 26일	8,740명
78호	03월 11일	8,208명	91호	09월 09일	8,895명
79호	03월 25일	8,349명	92호	09월 23일	8,872명
80호	04월 08일	8,390명	93호	10월 07일	8,189명
81호	04월 22일	8,456명	94호	10월 21일	9,007명
82호	05월 06일	8,484명	95호	11월 04일	9,055명
83호	05월 20일	8,548명	96호	11월 18일	8,780명

84호	06월 03일	8,603명	97호	12월 02일	8,718명
85호	06월 17일	8,682명	98호	12월 16일	8,913명
86호	07월 01일	8,700명	99호	12월 30일	8,950명
연간 26회 발행 / 연간 구독인원 223,111명 (회당평균 : 8,581명)					

언론보도 현황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건 수	4	1	4	16	10	18	2	8	7	18	5	5	98

시설이용 현황분석

구분	강의실	동아리실	시설대관	상담실	학습카페	자료관	합계
1월	5,363	3,382	3,769	1,313	2,301	530	16,658
2월	3,797	2,683	960	2,435	1,582	495	11,952
3월	4,881	2,398	810	2,568	1,856	490	13,003
4월	7,162	3,072	1,159	1,600	2,274	400	15,667
5월	6,459	3,144	850	1,277	1,801	500	14,031
6월	3,827	3,102	400	1,199	1,420	238	10,186
7월	5,185	3,127	1,705	1,296	2,071	368	13,752
8월	4,314	3,173	3,630	2,189	1,791	479	15,576
9월	7,891	3,046	780	1,894	2,223	376	16,210
10월	6,716	3,155	1,554	1,289	2,372	177	15,263
11월	6,831	3,105	2,758	1,383	2,497	162	16,736
12월	5,702	3,107	4,740	1,700	2,181	416	9,225
합계	68,128	36,494	23,115	20,143	24,369	4,631	176,880
(일평균)	(187)	(100)	(63)	(55)	(67)	(13)	(485)



2015

이렇게 일했습니다

- 인문사회
- 도요새책방
- 더느린삶
- 동네 수(手)작업장
- 시민리더
-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 생활문화 프로그램
- 지역연계
- 누구나학교
- 평생학습 아카이브

인문사회

2015년 인문사회 프로그램은 문학, 역사, 철학 등 전통적인 인문학 분야 외에 정치, 경제, 교육 등 세상이 돌아가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과학 분야의 강좌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인문사회적 소양을 풍부히 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 지성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 마을을 주목하고 <마을 인문학>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과 함께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사업의 가능성과 어려움을 모두 실감할 수 있었다.



시민인문학교

2015년 시민인문학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진과 함께 진행해온 <수원시민인문대학>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를 꾀했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재배치하고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참여자를 만나고 실천적 대중지성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총 12개 강좌, 연인원 2,369명이 함께 했으며, 후속모임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동양철학, 서양철학, 문학 등 분야별로 상하반기 총 12개의

강좌가 각 8주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공부란 무엇인가'를 개강 특강으로 시작하여 공부하는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2014년 새롭게 보강된 <리뷰/칼럼 쓰기>, <세상을 향한 글쓰기> 강좌에 이어 <나와 세상을 위한 글쓰기>가 진행됐다. 가을에는 한국문단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중견 및 젊은 시인, 소설가를 초빙, 작가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 강좌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문학의 매력에 빠져보았다.

인문·사회학 세미나

인문학 세미나는 사회학, 교육학, 정치학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프레임 자체를 근본에서 성찰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마련키 위함이다. 1학기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의 <자본주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자본주의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진화해온 과정을 설명하고, 21세기 자본주의의 성격을 짚어보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학기의 <오늘날의 노동과 복지>는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노동과 복지라

는 두 제도의 변화의 원인과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였다. 교육학 세미나는 교육학자가 아닌, 정치학 전공자 채효정 경희대학교 실천교육센터의 <교육 프레임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교육 프레임 자체에 대한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물음을 던졌다. 2학기에는 <인간의 탄생, 교육의 탄생>에서 노엄 촘스키, 피에르 부르디외, 파울로 프레이리의 사회사상을 공부하며 빼앗긴 삶과 삶을 되찾는 교육에 대해 토론했다.

예술인문학

2014년 예술인문학 <클래식 속의 역사, 역사 속의 클래식>, <한 여름의 재즈, 그 미학을 찾아서> 음악 분야에 이어 2015년 예술인문학은 미술로 시민들을 만났다. 김종길 <그림 읽어주는 남자 : 뜨거운 예술은 어떻게 가능한가?>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예술 들여다보기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감수성

을 증진하고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사면/리얼리즘과 예술가의 눈, 예술의 행동주의, 예술행동의 정신, 예술미학의 언어 등 총 4회의 과정에 168명이 참여해 예술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인문학

각 동네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공동체들이 더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을 심화하고,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을 열어 공유하는 학습형태로 준비되었다. 1학기에는 매탄 4동 한빛지역사회연구소와 <도시 읽기, 마을 읽기> 강좌를 운영했고, 정자1동 솔대노리협동조합과 지역화폐에 대한 강좌와 세미나 <나와 지역을 바꾸는 도깨비 방망이 지역화폐>를 추진했다. 2학기에는 골목 잡지 『사이다』와 <수원원도심이야기: 남문사람들>, 문화상회 다담과 <미술과 친해지는 교실: 미술, 과학을 그리다>를 진행하였다. <수원원도심이야기>는 수원의 골목을 누비며 수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온 『사이다』의 콘텐츠를 탐방형 강좌형식으로 담았으며, <미술과 친해지는 교실>은 '문화를 파는 가게'를 표방해온 문화상회 다담이 몇 년 동안 진행해온 과정에 지역 작가들

의 작업실 탐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을인문학은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한다는 취지와, 인문학 정신이 교실을 넘어 각자의 삶과 지역의 삶에서 구동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사업이다. 하지만 공공적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마을단위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고, 학습자의 개별 욕구와 사회적 의미를 연결하는 작업 역시 간단치가 않았다. 참여자 간에 이해의 폭이 커서 강좌의 수준을 맞추는 데에도 난점이 있었다. 무엇보다 기획을 함께 한 주체들 간에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해가 다름에도 학습관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 아쉬움만큼 학습효과가 컸던 사업이다.

명사특강

명사특강은 매월 1회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이 시대의 화두를 생각하고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성찰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에는 언론인 주진우의 <한국사회 언론과 민주주의>, 정치인 노회찬의 <한국정치와 진보>, 건축학자 서현의 <빛나는 건축>, 제주 올레 이사장 서명숙의 <느린 삶은 아름답다>, 서울신경정신과 원장 서천석의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경영학자 장하성의 <한국 자본주의

를 말하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의 <황교익의 본능의 맛, 문명의 맛>, 의학 교수 황상익의 <건강, 질병, 치유의 역사>, 천문학자 이명현의 <별 이야기와 함께 하는 우주 산책>, 인류학자 조한혜정의 <누구와 함께 어디서 살 것인가>, 여성학자 정희진의 <이 시대의 사랑과 분노>를 주제로 11번의 강연이 열렸고 2,83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교사인문학아카데미 5기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주관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교사인문학아카데미>가 올해로 5기를 맞아 '인문학과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주제로 9월 6일부터 11월 18일(8회)까지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매년 수원 지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

에서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심리 등 다양한 영역의 인문학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였고 수원 지역 교사 17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수는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창의 지성 수업 능력을 증진시키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혁신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요새책방

2015년 도요새책방에는 변화가 많았다. 책으로 연결된 다양한 실천 활동을 모색해보자는 1학기의 <백권학교>가 아쉽게도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을 다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인문사회 강좌와의 연계가 강조되었고, 강좌 이후 학습모임의 생성과 활성화를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도요새책방의 가닥을 잡았다.

창룡도서관 설립으로 중복된 도서관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가를 한쪽으로 정리하고, 대신에 다양한 모임활동이 용이한 공간환경을 조성했다. 새로운 읽기모임과 학습모임이 추가되고, 시민기획단이 꾸려져 스스로 북콘서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책방을 거점으로 일상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의 메시지가 발신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날개를 단 도요새책방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백권학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과 함께 다양한 책 속에 담긴 의미를 나누며 생각을 정리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2015년 1학기에 진행되었다.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양한 세상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개인의 실천을 약속하는 <북금데이>, 의자에서 읽으면 좋은 책들을 권하는 <책 읽는 의자>, 공통의 책을 선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묵독으로 읽고 난 후 질문카드를 작성

해 제출하고 가는 <질문하는 책읽기, 묵독모임>,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가지고 모닝 페이지와 기타 창조성 워크숍을 실천하는 <수요일 아침 첫 생각 쓰기>, 적당한 소유와 욕망을 배우며, 소박하고 심플한 삶을 위한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의 내용들을 실천해보는 <소박하고 심플한 우리들> 등이 이루어졌다.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과 시민기획단의 북콘서트

인문강좌의 후속모임 또는 강사 없이 책으로 하는 공부모임, 읽기모임을 이끌 매개자의 필요성을 느끼며 '승례문학당'과 연계해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을 개설했다.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은 독서모임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서토론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독서모임에서 중요한 진행자의 리더십을 배우고, 도서 선정 및 진행 노하우, 논제 발제 등을 익혔다. 독서토론의 재미를 체험하고, 독서토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분석, 코칭하는 실습 위주로 진행됐는데, 정원의 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

리면서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의 인기를 실감했다. 종강 이후에는 15명이 넘는 수강생이 자발적으로 읽기모임 <오독오독>을 구성, 책을 선정하고 돌아가면서 발제와 진행을 실습해보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북콘서트 시민기획단을 구성, 책을 선정하고, 매주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질문을 뽑는 등 직접 북콘서트를 기획, 11월에는 <세상과 대화하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북콘서트를 열었다. 2016년에는 격월로 북콘서트를 기획해 시민참여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도요새책방 읽기모임

시민인문학교 강좌 종강 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속 모임을 만들어 읽기모임을 시작했다.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명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함께 읽고 생각하고 소감을 나눈다. 미리 책을 읽어와 생각을 공유하고, 그 날 그 자리에 모여 몇 단락씩 돌아가며 읽어나가는가 하면, 시낭송이나 글쓰기를 하기도 한다. 모임원들이 함께 나눌 주제를 정하고 읽을 책들을 직접 선정하여 진행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

다. <글항아리 안다미로>, <소셜드림프로젝트>, <내 안의 파지스트 발견하기>, <사회간행물 읽기>, <시집통째읽기>, <사회학 세미나>, <장독>, <인문학 독서모임> 등 현재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10개의 읽기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느린삶

느린 삶, 생태적인 삶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함께 실행해 가는 프로그램이다. 도시생활 속에서 가능한 대안적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배우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얇을 삶으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가려 노력했다. 또한 느린 삶이라는 세대를 관통하는 관심사를 통해 관계를 맺고, 공동작업 등을 통해 이웃과의 소통과 나눔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파티 동네 북 Book 소리

12월에는 10개의 읽기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읽은 책들을 공유하고, 각 모임별 소개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별로 소개 시간을 직접 준비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높은 참여율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시낭송이나 노래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하고,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앞으로 각 모임들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며 책방의 의미를 되새겼다.

도요새책방 시사토크

진행자 KYC의 버거비씨와 초대게스트가 시의성 있는 의제를 매월 1회씩 리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통찰적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진행자는 다양한 언론사들의 뉴스를 브리핑하고, 초대게스트는 사회적 화두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스토리텔링한다. 개헌, 차이나머니, 경제, 그

리스 경제위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주제를 다뤘고 총 7회 140명이 참여했다. 그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참여의 기회를 높이는 새로운 시사토크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평화가 깃든 밥상

떡방과 쿡방이 대세인 요즘, 과연 '진짜 밥상은 무엇일까?'하는 의문이 더 강해진다.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살리고 친환경을 실천하는 <평화가 깃든 밥상> 강좌를 1학기 와 2학기 연 2회 운영하였다. 소박한 재료로 단순하게, 씨

앗부터 껍질, 뿌리까지 버리는 부분 없이 모두 먹는 자연요리를 배우고, 함께 둘러앉아 먹고 손바느질도 하며 음식에 관한 고민,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자리를 만들었다.

Bee Happy! 도시양봉가 되기

지구 환경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깨끗한 환경의 지표이기도 한 꿀벌의 중요성과 도시양봉의 생태적 가치를 알고 도시환경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도시양봉가를 양성했다. 지속적인 양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 강의와 실습이 병행된 교육을 진행하고 후속 동아리를 결성하였다. 도

시양봉 동아리는 학습관 옥상 양봉장에서 지속적인 양봉을 실천하며 자급자족의 즐거움을 나누고, 지역 어린이집에 친환경 벌통을 설치하여 도시양봉을 통한 생태교육에 나서는 등 환경과수꾼의 역할을 실행하고 있다.

막걸리교실 · 식초교실 · 전통주교실

막걸리 속에 녹아있는 우리 술의 문화와 역사, 발효의 미학을 배우는 <막걸리교실>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해를 이어 지속되고 있다. 발효의 첫 단계인 막걸리를 시작으로, 약주로 지칭되는 우리 청주와 이화주 등 중급 수준의 술 빚기 과정인 <전통주교실>이 이어지고 발효의 최종단계

인 식초까지 연속성을 가진 단계별 강좌가 운영되었다. 우리 발효음식 문화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식초교실>이 모집정원을 두 배 이상 초과하여 분반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방건강교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방지식을 한의사가 알기 쉽게 풀어주는 <한방건강교실-체질 편>은 체질에 따른 성격과 건강 특징, 기질을 이해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기도 했다. 수원새날의료협동조합 한의원 현승은 원장이 강의하는 시리즈 강좌로 이어질 예정이다.

더느린삶 네트워크파티 우리 만나!

더느린삶 강좌에 참여한 모두가 모여 서로 배운 지식을 나누고 강좌를 수강한 이후의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진행하였다. 2014년에 이은 두 번째 진행으로, 느리게 사는 삶에 대한 한층 성숙해진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직접 만들어진 막걸리, 식초, 꿀, 자연요리를 나누어 먹으며 삶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다시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동네 수(手)작업장

시민보다는 소비자로서의 정체성과 욕망이 강한 현대 도시인들. 이들에게 생산과 창조의 놀라움과 기쁨을 느끼게 하고, 소비자로 길들여진 도시인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업장이다. 2015년 초 학습관 1층의 다목적 학습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우선 목공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었다.

동네 수작업장은 목공을 비롯한 다양한 ‘만들기’를 통해 삶의 기술, 생활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학습모임을 꾸려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다. 첫해이니만큼 양적, 질적으로 아쉬움이 많았으나 기반을 다졌다는 큰 의미가 있었다.



재활용목공

단순히 목공에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비 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삶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노머니(no money) 라이프를 주창하며 도시에서의 주거, 에너지, 생활생산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디자이너 박활민이 핵심 강사로 함께 하면서, 공방 프로그램의 색깔과 방향을 견지해나갈 수 있었다.

상하반기 5차례 진행된 <박활민의 생활목공 워크숍>은 목

재 빠레트를 핵심 재료로 하여 진행되었다. 물건을 안정적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물인 빠레트를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다른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다. 4주간의 기초반에서는 다용도 상자를, 6주간의 중급반에서는 테이블 혹은 의자를 만들었다. 팀을 나누어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업마다 이미지를 찾아 함께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몸쓸공작단

몸쓸공작단은 초기 공방과 관련된 연구모임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목공수업의 후속모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결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술을 익히며 목재로 된 제품들을 만들어보고 있다. 학

습관 1층에 위치한 거북이공방 내부와 외부, 그리고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등이 몸쓸공작단에서 만들어낸 것들이다.

나무깎는 생활 - 숟가락, 그릇깎기

2015년 11월 21일부터 3주간 진행된 <나무깎는 생활-숟가락, 그릇 깎기> 강좌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제작활동의 기쁨과 자연의 재료를 통해 환경과 생태를 내밀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수강자들은 나뭇가지를 직접 고르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내기 위해 긴 시간 동안 한 없이 나무를 다듬는 작업을 반복하며, 효율과 성능을 강조하는 시대 속

에서 느림과 여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나무깎는 생활>을 통해 제작의 매커니즘, 유통구조의 매커니즘을 간파하는 현대인의 생활에 여러 자원과 기술이 자연에 기반한다는 것, 그래서 자연은 우리와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되새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시민리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양성과정을 수강하고 본 평생학습관 및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 또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5년은 평생학습상담사들의 자기주도성이 한층 심화되었고, 시민기자단 인원이 늘고 역량 계발에 애쓰고 있다는 점, 모더레이터 양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이 모더레이터 양성과정에 강사자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시민리더 양성에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



텃밭

올해 진행된 두 차례의 텃밭 강좌 중, 첫 번째는 이웃문화협동조합과 함께 기획했다. 지동에 위치한 제작공간 '다시'에서 상자텃밭을 활용하여 상추와 토마토, 가지 등을 키워냈다. 재배한 채소를 드로잉하거나, 다큐멘터리 관람을 함께 하고, 다육 식물을 함께 심어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자연

누리텃밭 협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두 번째 강좌에서는 학습관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 틀밭을 함께 만들어 가을작물인 배추와 무, 래디쉬 등을 키웠고, 자연누리텃밭으로 함께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본 강좌를 통해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했다.

움직이는 부엌 프로젝트

거북이공방의 <움직이는 부엌> 프로젝트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6주간 지역의 작가와 몸쓸공작단 약 15명이 함께 한 지역 연계형 목공프로젝트이다. 이동할 수 있는 부엌을 매개로 지역에서 '황금마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천원진 작가와 몸쓸공작단원들이 함께 이동형 부엌을 디자인/제작하였다. 참가자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부터 제작까지 진행하는 과정은 참가자 개개인에게 동기부여와 책임이

되었고, 이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제작활동으로 이어져 기대 이상의 결과물과 성취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 작업을 통해 개인을 위한 제작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제작 활동, 더 나아가 공공을 위한 활동으로 열망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거북이공방에서 지역을 연계하고 매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반딧불이상담실

반딧불이상담실은 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좌의 수강신청 및 환불 등 수강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학습상담사가 상주하여 학습자의 개인별 학습상담과 누구나학교와 뭐라도학교의 안내, 수원 관내 지역별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실에는 재

봉틀과 지렁이상자가 개방되어 있는데 재봉틀은 간단한 수선이나 오버로크를 사용할 수 있고, 지렁이상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사가 키우며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렁이에 대한 짧은 강의를 들은 후 가정으로 분양도 가능하다.

평생학습상담사

학습관 개관부터 반딧불이상담실을 지키며 수원지역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안내하고 조언해온 평생학습상담사 선생님들. 2015년에는 3기 23명이 배출되었고, 올해 양성과정 중 일부는 1, 2기 상담사들의 강의로 진행, 평생학습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학습관의 상담사들은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DB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

리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자체적으로 학습관 홍보 맨&우먼 역할을 자처해 누구나학교 강좌별 홍보물을 제작하고 게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 학습관 강좌를 홍보하기도 했다.

시민기자학교

수원시는 e수원뉴스, 시청 블로그를 중심으로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네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신문, 마을잡지를 만드는 시민기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도 평생학습에 대한 기록과 홍보 등을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기자학교>는 이렇게 지역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시민기자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시민기자학교>는 생활에세이형 글쓰기를 넘어 시대정신과 비판의식을 갖고 자신의 관점을 담아내는 기사쓰기를

위해 1학기는 대안미디어 너머와 함께 <세상과 만나는 글쓰기> 강좌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는 기사 기획, 자료조사와 취재, 인터뷰 방법, 기사쓰기 실습과 첨삭 과정을 통해 초보적인 기사쓰기 기술을 익혔다. 2학기에는 기사 구조화와 쓰기 실습을 강화한 <스토리텔링 글쓰기> 강좌를 운영했는데 운영 요일과 시간이 변경되면서 1학기 수강생들이 심화 단계로 유입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1, 2학기에 총 28명이 수료, 그 중 7명이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기자단에 합류(25%)했으며, 10여 명이 지역의 여타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기자단

교육을 통해 합류한 7명을 포함해 2015년 현재 학습관 시민기자단은 총 13명이다. 이들은 학습관의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리뷰, 강사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원 및 인근지역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마을 행사, 지역 예술가 인터뷰 등의 취재 활동을 통해 평생학습과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한다. 월 1회 정기모임에서 자신의 활동을 나

누고 상호 학습하며, 12월에는 시민기자단 보수교육에 참여하면서 역량 계발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는 기사의 주제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교육을 넘어 지역과 사회 이슈에 반응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더욱 다양한 기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스터디, 보수교육 강화를 통해 양질의 기사를 꾸준히 업로드 하고자 한다.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모더레이터는 중립성에 기초해 의사소통 절차를 설계하는 사람, 적절한 도구와 기법을 활용해 학습을 풍요롭게 설계하고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다. 2015년 모더레이터 양성과정은 정리된 결론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힘(방법)을 기르는 강의와 실습, 토론과 과제 그리고 이론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 중심의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소통방식과 공유의 가치, 의사소통과 갈등중재 등을 주

제로 공동체 구성원 간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실행해 보았다. 양성과정 이후에는 영일중 학교에서 있었던 '찾아가는 누구나학교-레츠컨퍼런스'에 모더레이터로 참여해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강좌는 2014년 학습관의 모더레이터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로 구성된 '소셜드림프로젝트 CoCoCo'가 진행이자 멘토로 함께 했다.

인큐베이팅센터

2013년에 개소한 인큐베이팅센터 99℃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양성과정 프로그램 수료생이 공익적 일자리 및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절차를 거쳐 공간, 컨설팅,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라온경제교육협동조합(경제강사양성과정 수료생, 2013년 입주), 추억디자인연구소(인생수업 1기 수료생, 2014년 입주), 소셜드림프로젝트 CoCoCo(모더레이터 양성과정 수료생, 2014년 입주)가 활동하는 가운데, 2015년에는 뭐라도학교 인생수업 2기 수료생들로 구성된 '한줄행복'이 입주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한줄행복은 시니어의 풍부한 인생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

도록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단으로 2명의 멘티에 대한 밀착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입주사업단의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해였다. 소셜드림프로젝트 CoCoCo는 2015년 수원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다양한 학습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온경제교육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크라우드 펀딩대회를 통해 "장애인 희망복돋움 워크북"을 제작하였고, 완주군, 전북대학교 협력사업인 "어린이 경제강사 양성과정(10차시 60시간)"을 진행하기도 했다. 추억디자인연구소는 뭐라도학교와 함께 평생학습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영리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업무능력향상 교육으로부터 출발한 스마트워크 아카데미는 동시대 디지털기술의 성취를 업무에 적용, 여러 가지 제약을 넘어 거친 시대에서 스마트하게 살아가면서 일하는 방법을 전하고자 하였다. 2015년에는 브랜딩, 기획, 디자인이라는 3가지 주제 안에서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방법을 전수, 업무에 자신감과 즐거움을 더하고자 하는 한편,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강좌도 편성하였다. 그 외에 정보 문해 해소를 위한 디지털 친화 과정,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실습 워크숍도 함께 진행하였다. 양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2학기의 경험을 살려 토요일 편성을 늘리고 홍보 방안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작은 회사를 위한 브랜딩 워크숍

브랜딩이 꼭 필요하지만 적은 예산이 문제인 작은 회사 또는 스타트업을 위한 저비용 셀프 브랜딩 워크숍. 스몰 비즈니스와 스타트업 브랜딩을 전문으로 하는 가지공장 이지윤 대표의 <작은 회사 브랜딩 전략 세우기>를 시작으로 문화기획자 장효진의 <누구나 할 수 있는 문화기획>, 파워블로거 친절한 혜강씨의 <직접 하는 블로그브랜딩 실무> 등을 진행했다. 지금은 TV출연으로 유명해진 제이쓴을 유명해

지기 전에 만나볼 수 있었던 <저비용 고효율 느낌 있는 공간 만들기 실무>는 인테리어 이론부터 직접 페인팅해보기 실습까지 해보는 알차고 인기있는 강좌였다. 수원지역에서 17년째 디자이너로 잔뼈가 굵은 디자이너 서동수의 <인디자인 스튜디오 사례로 보는 셀프 디자인 브랜딩 실무>는 디자인을 통한 브랜딩 방법과 함께 1인 기업의 현황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획의 달인

정보수집, 생각 정리, 아이디어 발상, 논리적 사고, 기획서 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였다. 기획에 관한 교육이나 책이 많이 있지만, 실상 기획을 위해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하는 자료수집이나 문제점 파악에 대한 교육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필요성을 느끼고 진행하게 되었다. 마켓캐스트 김형택 대표의 <자료수집 방법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수집 루트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빅데

이터 분석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비즈센 이호철 대표코치의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방법>, <논리력과 설득력이 있는 기획서 작성방법> 강좌를 통해 맥킨지식 사고방법과 문서작성 방법을 익히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라이프 디자이너 김경수 강사의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생각 정리법>도 진행하였다.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디지털기술을 업무에 적용하여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업무에 즐거움과 힘을 더하게 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전문 디자이너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서 하나도 디자인의 원리를 알면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다. 디지털 홍보 미디어 중 가장 고전이지만 가장 효과가 높기도 한 이메일 활용 강좌 <홍보 업그레이드-이메일 뉴스레터 디자인>을 슬로워크 스티비 서비스 기획담당인 임호열 팀장이 진행했다. 디자이너 서동수의 <내 손

으로 하는> 처음 웹포스터 디자인>은 실제 웹 포스터를 만들 때 필요한 포토샵 실무 팁을, <(<삶을 바꾸는> 처음 블로그 디자인>은 회사를 벗어나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두 명의 파워블로거 친절한 혜강씨와 열쓰님의 블로그 운영 노하우를 다뤘다. <독립 출판을 위한 인디자인 워크샵>은 토요일 늦은 오후 시간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책을 만들고자 하는 수강생의 열정과 김은영 강사의 카리스마가 어우러져 좋은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었던 강좌였다.

디지털 친화 과정

시니어의 상황에 맞춰 꼭 필요한 앱을 배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 스마트폰 맞춤 교육 <일상 스마트폰 처방전> 강좌를 열었다. 1학기에는 길찾기, 정보검색, 소통, 재미 등을 테마로 한 단기강좌로 진행하였고, 이후 수강생들의 요구에 맞춰 총 6회차 과정의 <시니어를 위한 생활밀착 스마트폰> 과정을 1,2기로 진행하였다.

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놀자! 초등학생을 위한 스크래치> 교육을 진행했고, <크롬 브라우저 100% 활용하기>를 통해 인터넷 자원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기도 하였다. 그 외에 프레젠테이션 툴인 프레지 관련 수업, 마인드맵 활용, 비주얼씹킹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여름학기에는 어린이들이 코딩을 접하고 이를 통



생활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평생학습관을 접하고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활문화강좌를 통해 학습을 통한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 서로가 이웃이 되는 소통의 장을 꿈꾸며 건강체육, 음악, 미술, 컴퓨터, 사진, 글쓰기, 영어 강좌 등 학기별 40~45개, 연간 180여 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은 수강생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생활문화강좌 '우리 함께 발표회'를 대강당에서 열기도 하였다.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학교



어린이 · 청소년 · 장애청소년 강좌

어린이 · 청소년 강좌는 토요일 특화프로그램이다. 어린이의 상상력을 재구성하여 스토리를 만들어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창의력 만화교실>과 동요의 예쁜 노랫말과 발성, 자세, 호흡을 배우고 함께 부르는 작업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 그리고 소통도 덩으로 배우는 <쫄쫄 동요교실>이 어린이 수강생과 학부모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어린이 연극교실>은 연극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며 대사를 외워 무대에 올려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강좌로 2015년 신설했다. 청소년 포크기타 강좌는 <청소년기타클럽>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 음악을 통한 청소년

들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매 학기 첫 시간에 모더레이터와 함께 하는 아이스브레이킹과 게임을 통해 참여자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활동, 생각정리 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청소년 강좌 <물감과 스케치>에서는 수채화를 배워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게 했고, 재활훈련이 목적인 <바느질교실>에서는 손과 눈의 협응력, 집중력을 기르고 생활에 필요한 단추달기 등을 배웠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장애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어깨동무 경제교실>이 신설되어 돈과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통장발급 등의 은행업무, 식료품의 구입, 돈 계산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지역연계

생활문화강좌 발표회기획단과 우리 함께 발표회

2011년 개관과 함께 운영되어 온 생활문화강좌는 2012년 하반기부터 음악 강좌를 중심으로 강좌 안 작은 발표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2013년 당시 문화예술학교의 드로잉, 캘리그래피, 뮤지컬교실이 연합해 연 발표회를 기점으로 매년 말 카페 담쟁이에서 소소한 발표회를 진행해왔다.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강좌의 수가 늘어갔고 강좌별로 강의실에서 진행할 때와는 또 다른, 강좌 간 배움과 관심, 격려의 분위기로 새로운 소통의 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2015년엔 판을 키워 '우리 대강당에서 발표회 해요!'를 슬로건으로 발표회에 참여할 강좌를 공개모집하고 발표회기획단을 꾸렸다. 발표회기획단은 우리가 꿈꾸는 발표회를 위한 '창의적인

기획자'이자 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과 본인의 강좌에서 논의된 내용을 양쪽에 전달하는 '논리적인 스피커이자 통로'로서 5번의 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발표회의 큰 그림부터 소소한 준비사항까지 면밀하게 기획하였다. 발표회 진행순서와 시간 배분을 정했고, 전시공간의 구성과 공연진행을 위한 사회자도 뽑았다. 발표회 당일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직접 찾아 배분했다. 수고스러운 일에 누구라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서로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생활문화강좌 발표회기획단은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임을 정례화해 2016년 생활문화강좌의 행사와 강좌 간 교류와 소통의 시도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설립 초부터 지역사회 평생학습 허브를 표방하고 있다. 학습관 안의 강좌 중심을 넘어서 수원시 전체를 조망하며 평생학습을 고민했다. 하지만 이것은 학습관 혼자만의 힘이 아닌 여러 주체들과의 연대의 힘을 필요로 한다. 지역 안에서 평생학습은 물론 개인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해온 기관, 쌓아온 성취만큼 실패로부터 배운 바가 많은 단체 등과 관계망을 조직하는 것이다. 2015년 지역연계사업은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하지만 평생학습 관련 기관장 네트워크 모임이 신설되었고, 실무자 모임인 와글와글포럼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동 단위와 연계한 웰컴투수원은 쉽지 않은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곡선동 서포터즈와 같은 의미있는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수원평생학습 외곽외곽포럼

2012년부터 시작되어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매년 초 기획포럼을 통해 한해를 꾸려갈 포럼 주제들을 선정하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2012년과 2013년에 6명의 추진단원을 중심으로 포럼의 방향을 정했다면, 2014년과 2015년에는 매년 함께 할 추진기관을 모집하고, 그 기관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보다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2015년에는 평생학습기관 실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6가지-통찰력, 공감능력, 열정, 소통, 사명감, 사고의 유연성-를 포럼 주제로 선정, 평생교육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

한 구체적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로도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참여와 연대로 평생학습기관 간 학습공동체 구현을 계속해서 다져 나갈 것이다. 2015년에는 총 17개의 추진기관(서수원주민편의시설, 서호노인복지관, 수원가족여성회관, 수원시교육청소년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제일평생학교, 수원체육문화센터,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엘큐브리더십센터,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장안구민회관, 수원의제21, 연무사회복지관)이 함께 했다.

수원지역 평생학습관련 기관장 네트워크 모임

지역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장들의 마인드와 학습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었다.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된 2015년 기관장 네트워크 모임은 주로 이 모임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한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제안, 강의, 워크숍, 토론 등이 각 한차례씩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모임에서는

2016년 활동으로 상호 기관탐방, 공동학습, 특정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시스템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소박한 출발이긴 하지만 기관장들이 모여 학습의지를 보이고, 각 기관은 물론 전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역량에 공동책임을 지고자 하는 뜻 깊은 동참에 감사하며 기대를 걸어본다.

학습동아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습동아리를 육성·지원하여 지속적인 평생학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학습관의 유휴공간을 모임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생활 속에서 배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좌의 배치규모가 확인되는 매년 2월 공고를 통해 공간사용 신청을 받아 3월 초 배치, 동아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연 후 연간 사용할 수 있다. 2015년 50여 개의 동아리가 학습관에서 함께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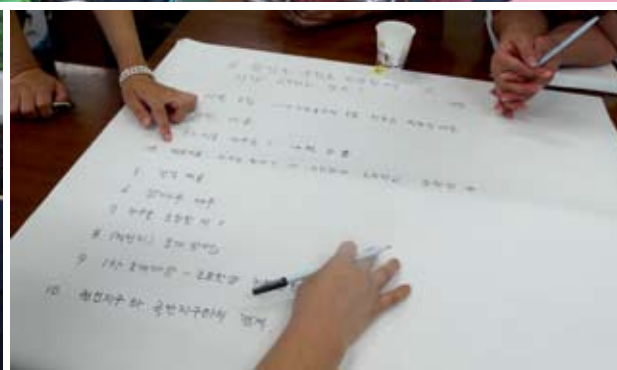




웰컴투수원

웰컴투수원은 수원에 새로 이사 온 시민들이 수원 시민이자 거주 동민으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수원살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이다. 동 단위로 원주민과 진입 주민이 만나 마을 현안과 지역의 정보 등을 나누며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90분의 프로그램에는 친해지는 시간, 마을의 정보를 알려 주는 '친절한OO씨의 이그나이트', 간단한 다과와 함께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이웃과의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웰컴투 수원 동서포터즈와 주민센터가 주관한다.



휴먼라이브러리

2015년 9월 수원 곳곳에서 휴먼라이브러리 행사가 진행되었다. <2015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주간weeks>이라는 이름으로 11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시작하여, 12일에는 화성행궁 화령전 앞에서, 19일에는 매탄동과 고색동에서 사람책 대출 행사를 이어갔다. 이 행사는 휴먼라이브러리 정신에 공감하는 수원지역 내 여러 단체들의 연합으로 꾸러진 '휴먼라이브러리수원 네트워크 준비모임'의 주최 및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휴먼라이브러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이 이

미 준비된 사람책을 빌려 읽으며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해보는 대화의 장이다. <2015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주간weeks>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편견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다. 그 첫 시도로 행궁동과 고색동, 매탄동의 거리, 작은 도서관에서 사람책과 독자들이 만나는 자리가 열렸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세상을 이해하며 꿈을 그려가듯, 수원지역 언제 어디서나 사람책 도서관이 열리기를 바란다.



찾아가는 학교

수원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모임에 찾아가는 강좌를 제공하여 활력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인큐베이팅센터 입주사업단의 강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라온경제교육협동조합의 <경제교실> 272회차,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의 <대단한 교실> 60회차, 추억디자인연구소의 <영상앨범 제작교실> 28회차 등 총 360회차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는 <똑똑경제 탄탄미래> 프로그램과 학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

리적인 학생자치회의 방법을 깨닫게 하는 <평화테이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리하고 영상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 드리는 시니어 맞춤 과정 <영상으로 쓰는 My Story>가 인기 교육으로 자리잡았다. 2016년에는 교육대상에 맞춘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며, 각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단이 직접 교육신청을 받고 진행과 예산을 운영하면서 사업능력향상도 함께 꾀하고자 한다.



누구나학교

놀이터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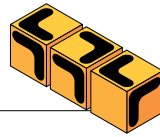
〈놀이터 프로젝트 따로 또 같이〉는 놀이에 목마른 아이들을 위해서, 동네에서 지속적인 놀이문화를 만드는 것에 공감한 수원여성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과 수원시평생학습관이 함께 기획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놀이문화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부모 45명을 대상으로, 전래놀이를 배우는 기본과정, 마을단위

에서 놀이마당을 열어보는 실습과정이 이루어졌다. 기본교육과 실습과정을 이수한 31명의 부모들은 수료 후에도 후속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놀이문화를 만들기 위한 경험을 나누며 서로 배우는 장을 펼쳤다. 아이들은 삶에서 필요한 다양한 가치들을 놀면서 스스로 터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뜻 깊은 과정이었다.



2015년도에도 계속 이어진 누구나학교는 150개의 강좌가 열렸으며 898명의 시민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건강, 언어, 여행, 퍼실리테이션, 자기계발·습관, 수화, 취미, 음악·악기, 만들기, 그리기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었다. 어린이 강사의 참여, 청소년 서포터즈 등 10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배움과 가르침의 경계를 넘어서는 학습양상의 확장, 누구나발표회 같은 ‘누구나OOO’의 응용버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한해였다.





누구나학교

2015년 누구나학교는 어린 학생들의 유입도 이어져 중학생 강사의 <어르신과 파워포인트>나 초등학생 강사의 <미니케이크 만들기>가 개설되었으며, 수원외고 교육미네르바 동아리원의 초등생을 위한 <겨울방학특강>이 개설되었다. 누구나학교에서 강사로 참여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부모나 자녀, 친구들에게 영향을 준 경우이다.

그 외에 처음 시도한 <누구나 발표회>에는 '다연회'의 전통말차 시연과 누구나학교 강사의 거문고 연주가 콜라보로 무대에 올랐고, 가야금, 오카리나 등 총 5팀이 신청해서 4팀이 무대에 올랐다. 수원 전역을 대상으로 발표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참여자와 관객의 구분 없이 누구나가 흥겨운 발표회였다.

누구나학교 성과공유회

12월에는 누구나학교 성과공유회가 열려 강좌를 진행한 시민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함께했다. 조별로 관심사도 나누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짧은 강좌도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의 더 많이 참여를 기대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진행되는 누구나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강좌의 단계에서 나아가 강사자 없이도 배우고 싶은 것을 같이 학습하는 다양한 형태의 배움이 있는 누구나학교로 진화되고 있다.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수원외고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 <영일중학교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등 학교 단위로 열리는 누구나학교와 <영통중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 <익산희망연대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 <고수면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등 다양한 기관, 지역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 방법을 놓치지 않고 운영중이다. 자신만의 재능과 경험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만남과 배움과 가르침이 여러갈래로 교차되는 누구나학교를 기대한다.

누구나쌤, 누구나서포터즈

2013년부터 방학이 되면 고등학생들을 위한 <누구나쌤>이 열렸다. 1기부터 5기까지 참여했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수업을 열고 그 속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공존하는 <누구나학교>의 매력에 빠졌다. 자신과 친한 친구를 넘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 스스로 제안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누구나학교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누구나학

교 청소년 서포터즈>가 필요하다" 는 것에서 탄생한 <누구나학교 청소년 서포터즈>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구나쌤 6기, 7기>를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2016년은 고등학생을 넘어 대학생까지 참여하는 <누구나학교 청소년 서포터즈>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아카이브

정보를 취합, 발신한다는 행위는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조직화의 차원이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수원 및 전국 평생학습기관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보의 생산, 수집, 제공, 전파를 통해 평생학습 분야에 다양한 이슈를 전달하고 활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격주로 발행되는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와 다양한 자료를 축적, 공유하는 <평생학습 아카이브 와>를 통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학교

동향리포트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는 2015년 총 26차례(제74호~제99호) 발행됐다. 1월에 코너 및 디자인 개편을 통해 이슈&인물, 와배움터, 북너머, 혁신·교육思考, 칼럼, 교육스케치 등 6개 코너를 기획·운영했다. 해외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혁신·교육思考'처럼 3년 이상 운영된 코너도 있고, 지역, 공동체, 공부를 주제로 한 '칼럼', 학자별 교육철학을 연재한 '와 배움터' 코너를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하

반기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발맞춰 '자유학기제-두 개의 시선' 코너를 신설, 하나의 주제를 두 명의 필자가 번갈아가며 다루었다. 이처럼 <동향리포트 와>는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평생학습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다양한 이슈와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는 기사 기획에 더욱 힘을 쏟아 깊이 있게 주제를 다루고 공론장으로서 의제를 확장시켜 나가고자 한다.

아카이브 와

<평생학습 아카이브 와>는 동향리포트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이자 누구나 평생학습 소식 및 단체 소개 등을 업로드할 수 있는 오픈형 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했다.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반응형 사이트로 개편하고, 카테고리 단순화, 연관 콘텐츠 링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사이트 안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지만 개편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사이트가 불안정하게 운영됐고 웹 상에 콘텐츠 노출도가 감소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사이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관 사업 자료나 프로그램 결과물, 시민기자단 기사 등 새롭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생기있는 사이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2015 프로그램 목록

겨울학기(1~2월) 교육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명사특강	[01월] 한국사회의 언론과 민주주의	주진우	전체	1
	[02월] 한국 정치와 진보	노회찬	전체	1
예술인문학	그림 읽어주는 남자: 뜨거운 예술은 어떻게 가능한가	김종길	성인	4
외국어	여행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8
	리스닝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8
	영자신문, 뉴스 읽기	정선영	성인	8
	기초영어회화	홍이성	성인	15
글쓰기	왕초보영어 시작반	홍이성	성인	15
	초보영어 계속A반	홍이성	성인	15
	초보영어 계속B반	홍이성	성인	15
	내 인생의 글쓰기	김소라	성인	8
마을열린극장	[01월] 워커즈	-	전체	1
	[01월] 지미스 홀	-	전체	1
	[02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	전체	1
말랑말랑 시사토크	[01월] 개헌 논란, 개헌 내용 짚어보기	오동석	전체	1
	[02월] 개헌과 정치: 권력과 지방자치 알아보기	손혁재	전체	1
북금데이 : 함께읽기	세월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	전체	1
	소유 줄이기 (심플하게 산다)	-	전체	1
	가족 (가족의 탄생)	-	전체	1
	공동체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	전체	1
더느린삶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	전체	1
누구나학교	고교생 봉사프로그램 누구나쌤 5기	권지현 외	청소년	2
휴먼라이브러리	휴먼라이브러리수원 설명회	-	성인	1
찾아가는학교	고등동 새마을금고	-	어린이	8
	꽃피 지역아동센터	-	어린이	4
	대추동이 작은 도서관	-	어린이	4
	상률초등학교 돌봄교실	-	어린이	4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밤꽃마을샘터문고	-	어린이	4
	더 나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프레지 초급	유장휴	성인	2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인포그래픽	이혜강	성인	2
	창의적 인재를 위한 마인드맵 활용하기	정진호	성인	1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컴퓨터	실무 엑셀 2010 심화반	공은화	성인	15
	왕초보 컴퓨터 기초반	이재경	성인	15
	왕초보 컴퓨터 활용반	임선자	성인	15
장애청소년	물감과 스케치	이경선	청소년	8
	형값소품교실	정미숙	청소년	8
음악	금요드림 중급반	오세준	성인	8
	금요드림 초급반	오세준	성인	8
	수요드림 고급반	오세준	성인	7
	수요드림 초중급반	오세준	성인	7
	토요드림 중급반	오세준	성인	8
	토요드림 초급반	오세준	성인	8
	우쿨렐레 시작반	한은경	성인	7
	우쿨렐레 계속반	한은경	성인	7
	청소년 포크기타 시작반	김동현	청소년	8
	청소년 포크기타 계속반	김동현	청소년	8
어린이 프로그램	클래식과 포크기타 시작반	신인근	성인	8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A반	신인근	성인	8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B반	신인근	성인	8
	송송동요교실 (1-3학년)	한윤희	어린이	6
	방학특강 만화야놀자 A반	김을호	어린이	6
	방학특강 만화야놀자 B반	김을호	어린이	6
건강체육	댄스스포츠 초급	홍석민	성인	15
	댄스스포츠 중급	홍석민	성인	15
	요가 평일반	김현	성인	15
	요가 토요일반	김현	성인	8
사진영상	요가 토요일반	김현	성인	8
	디지털카메라	나종민	성인	4
문화예술학교	DSLR	나종민	성인	8
	사진편집과 UCC제작	문경순	성인	8
	윤경숙의 캘리그래피 오전반	윤경숙	성인	4
	윤경숙의 캘리그래피 저녁반	윤경숙	성인	4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문화예술학교	이훈의 뮤지컬 교실 입문반	이훈	성인	8
	이훈의 뮤지컬 교실 공연반	이훈	성인	7
	이오연의 드로잉미술학교 오후반	이오연	성인	7
	이오연의 드로잉미술학교 저녁반	이오연	성인	7

1학기(3~6월) 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명사특강	[03월] 빛나는 건축	서현	전체	1
	[04월] 느린 삶이 아름답다	서명숙	전체	1
	[05월]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서천석	전체	1
시민인문학교	개강특강-공부란 무엇인가	하승우	성인	1
	처음 읽는 한국 현대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성인	8
	데카르트 『방법서설』, 『성찰』 읽기	서동은	성인	8
	나와 세상을 위한 글쓰기	고영직	성인	8
	자본주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홍기빈	성인	8
	교육프레임에 대한 근본적 질문	채효정	성인	4
	도시 읽기, 마을 읽기	한빛지역사회연구소	성인	8
마을인문학	솔대노리협동조합	성인	8	
외국어	여행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16
	리스닝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16
	왕초보 영어 시작반	홍이성	성인	32
	초보 영어 계속A반	홍이성	성인	32
	초보 영어 계속B반	홍이성	성인	32
글쓰기	기초영어회화	홍이성	성인	32
	내 인생의 글쓰기	김소라	성인	16
마을열린극장	[03월] 달팽이의 별	-	전체	1
	[03월] 자전거 탄 소년	-	전체	1
	[04월] 투 올드 힙합키드	-	전체	1
	[04월] 헤어드레서	-	전체	1
	[05월] 굿바이 홀런	-	전체	1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마을열린극장	[05월] 우리학교	-	전체	1
	[06월] 그리고 싶은 것	-	전체	1
	[06월] 리스본행 야간 열차	-	전체	1
말랑말랑 시사토크	[03월] 차이나 머니가 들어온다	김수한	전체	1
	[04월] 문제는 CCTV가 아니야	김호연	전체	1
	[05월] 장그래가 많아지면 경제가 살까?	홍헌호	전체	1
읽기 프로그램	나만의 일상기록집 만들기	-	성인	12
	내 안의 따지스트 발견	-	성인	11
	수요일 아침 첫 생각 쓰기	-	성인	9
	소박하고 심플한 우리들	-	성인	7
읽고 토론하기	2015년 1학기 책거리파티	-	성인	1
	경제성장과 환경	박진우	성인	7
	말과 행위: 정치와 삶의 가능성	양만호	성인	9
길 위의 학교	감정적 삶에 대한 내밀한 투시	김은하	성인	9
	길 위의 학교 수원화성	김준혁 외	성인	8
더느린삶	평화가 깃든 밥상	송정은	성인	6
	막걸리교실	허시명 외	성인	6
	도시양봉가 되기 2기	박진	성인	8
	도시양봉 미니 강좌	박진	성인	1
동네手작업장	생활목공 워크숍 5월	박활민	성인	4
	생활목공 워크숍 6월	박활민	성인	4
	거북이공방 오픈 워크숍	-	성인	1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데일리로잉	김탕	성인	8
	이웃과 즐기는 초보도시텃밭	이웃문화협동조합	성인	6
지역리더 양성과정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3기	-	성인	14
시민기자학교	놀이터프로젝트 따로 또 같이	-	성인	10
	세상과 만나는 글쓰기	대안미디어 너머	성인	8
찾아가는학교	우만사회복지관	-	성인	6
	수원외국어고등학교	-	청소년	1
	효동초등학교	-	어린이	4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찾아가는학교	아름다운 꿈의 작은 도서관	-	어린이	12
	남창초등학교	-	어린이	13
	선일초등학교	-	어린이	18
	세곡초등학교 학부모회	-	성인	2
	동성중학교	-	청소년	2
	대명고등학교	-	청소년	3
	천일초등학교	-	어린이	32
워라도학교 월담	[03월]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	정현채	전체	1
	[04월] 나이 늙은 즐거움	김경집	전체	1
	[05월] 기적의 오케스트라 - 엘 시스템아	윤나리	전체	1
워라도학교	워라도학교 개교식	-	성인	1
	인생수업 2기	-	성인	8
	인생수업 2기 심화과정	-	성인	5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독립출판을 위한 인디자인 워크샵	김은영	성인	8
	[브랜딩] 작은 회사 브랜딩 전략 세우기	이지윤	성인	2
	[브랜딩] 누구나 할 수 있는 문화기획	장효진	성인	2
	[브랜딩] 저비용 고효율 느낌 있는 공간 만들기	제이슨	성인	1
	[브랜딩] 직접 하는 블로그 브랜딩 실무	이혜강	성인	1
	[브랜딩] 셀프디자인 브랜딩실무	서동수	성인	4
와글와글포럼	일상 스마트폰 처방전	강진영	성인	8
	와글와글포럼	-	성인	5
컴퓨터	실무엑셀2010 기초반	공은화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시작반	이재경	성인	32
	왕초보 컴퓨터 활용반	임선자	성인	32
장애청소년	바느질 공예 교실	정미숙	청소년	12
	물감과 스케치	이경선	청소년	12
	우리아이 경제교실	김효연	청소년	12
음악	우쿨렐레 계속반	한은경	성인	16
	우쿨렐레 시작반	한은경	성인	16
	수요드럼 초중급반	오세준	성인	16
	수요드럼 중급반	오세준	성인	16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음악	금요드럼 시작반	오세준	성인	16
	금요드럼 고급반	오세준	성인	16
	토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16
	토요드럼 중급반	오세준	성인	16
	클래식과 포크기타 시작반	신인근	성인	16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A반	신인근	성인	16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B반	신인근	성인	16
	청소년 포크기타 시작반	김동현	청소년	14
	청소년 포크기타 계속반	김동현	청소년	14
	아무나뮤직	김동현	성인	8
어린이 프로그램	송송동요교실(초등1-4)	한윤희	어린이	16
	창의력 만화교실 A반(초등4-6)	김을호	어린이	16
	창의력 만화교실 B반(초등2-3)	김을호	어린이	16
	창의력을 높이는 즐거운 연극교실	박진숙, 배혜숙	어린이	10
건강체육	댄스스포츠 초급	홍석민	성인	32
	댄스스포츠 중급	홍석민	성인	32
	요가 평일반	김현	성인	32
	요가 토요 A반	김현	성인	16
	요가 토요 B반	김현	성인	16
	맵시무브먼트 오전 A반	이영미	성인	16
	맵시무브먼트 오전 B반	이영미	성인	16
	맵시무브먼트 저녁 A반	이영미	성인	8
	맵시무브먼트 저녁 B반	이영미	성인	8
	사진편집과 UCC제작	문경순	성인	8
사진영상	사진편집과 E-Book	문경순	성인	8
	디지털카메라 A반	나종민	성인	4
	디지털카메라 B반	나종민	성인	4
	DSLR	나종민	성인	8
문화예술학교	DSLR 고급반	나종민	성인	8
	윤경숙의 캘리그래피	윤경숙	성인	8
	이오연의 드로잉교실	이오연	성인	8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음악	이훈의 뮤지컬 교실 입문반	이훈	성인	16
	이훈의 뮤지컬 교실 공연반	이훈	성인	16

여름학기(7~8월) 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명사특강	[07월] 맛있는 여행	황교익	전체	1
	[08월] 한국 자본주의를 말하다	장하성	전체	1
시민인문학교	몸과 마음을 깨우는 평화 감수성 워크숍	이대훈	성인	2
외국어	여행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8
	리스닝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8
	기초영어회화	홍이성	성인	16
	왕초보영어 시작반	홍이성	성인	16
	초보영어 계속A반	홍이성	성인	16
	초보영어 계속B반	홍이성	성인	16
더느린삶	식초교실 오후반	허시명 외	성인	4
	식초교실 저녁반	허시명 외	성인	4
	우리 옥상 도시꿀벌 이야기	박진	성인	1
동네수작업장	도시락 목공 워크숍	박활민	성인	1
	생활목공 워크숍 기초반	박활민	성인	4
누구나학교	고교생 봉사프로그램 누구나쌤 6기	-	청소년	1
찾아가는학교	대선초등학교	-	어린이	20
	수원외국어고등학교	-	청소년	1
	장안구민회관	-	성인	4
	장안구민회관	-	어린이	3
	화성샘내도서관	-	어린이	2
	비전업청소년학교	-	어린이	8
뫼라도학교 월담	[07월] 행복을 부르는 마음명상	송탁 스님	전체	1
	[08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강창희	전체	1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비주얼씹킹+마인드맵 워크숍	정진호	성인	2
	더 나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프레지	유장휴	성인	2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인포그래픽	이해강	성인	1
	스크래치 기초 (초등1-3)	임선자	어린이	8
인큐베이팅센터	스크래치 코딩 (초등4-6)	임선자	어린이	8
	인큐베이팅센터 컨설팅	-	성인	5
컴퓨터	왕초보 컴퓨터 기초반	이재경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활용반	임선자	성인	16
장애청소년	물감과 스케치	이경선	청소년	8
	바느질소품교실	정미숙	청소년	8
음악	어깨동무경제교실	김효연	청소년	8
	금요드림 고급반	오세준	성인	8
	금요드림 시작반	오세준	성인	8
	수요드림 초중급반	오세준	성인	8
	수요드림 중급반	오세준	성인	8
	토요드림 중급반	오세준	성인	8
	토요드림 초급반	오세준	성인	8
	우쿨렐레 계속반	한은경	성인	8
	청소년 기타클럽 시작반	김동현	청소년	8
	청소년 기타클럽 계속반	김동현	청소년	8
어린이 프로그램	클래식과 포크기타 시작반	신인근	성인	8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A반	신인근	성인	8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B반	신인근	성인	8
	아무나뮤직 (공연반)	김동현	성인	4
	송송동요교실 (1-6학년)	한윤희	어린이	6
	방학특강 만화캠핑A (초등4-6)	김을호	어린이	6
	방학특강 만화캠핑B (초등2-3)	김을호	어린이	6
	창의력을 높이는 즐거운 연극교실	박진숙, 배혜숙	어린이	6
	댄스스포츠 초급 (저녁반)	홍석민	성인	16
	댄스스포츠 중급 (저녁반)	홍석민	성인	16
건강체육	요가 평일반	김현	성인	16
	요가 토요A반	김현	성인	8
	요가 토요B반	김현	성인	8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건강체육	맵시무브먼트 오전반	이영미	성인	16
	맵시무브먼트 저녁반	이영미	성인	18
사진영상	디지털카메라	나종민	성인	4
	DSLR 고급반	나종민	성인	8
	사진편집과 E-book	문경순	성인	8
문화예술학교	윤경숙의 캘리그래피	윤경숙	성인	6
	이훈의 뮤지컬교실 입문반	이훈	성인	8
	이훈의 뮤지컬교실 공연반	이훈	성인	8
	이오연의 드로잉교실	이오연	성인	6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마을열린극장	[09월] 일 포스티노	-	전체	1
	[10월] 퍼스트 그레이	-	전체	1
	[10월] 블랙	-	전체	1
	[11월] 아무르	-	전체	1
	[11월] 히어애프터	-	전체	1
	[12월] 아버지의 이메일	-	전체	1
	[12월] 우리 가족	-	전체	1
말랑말랑 시사토크	[09월] 그리스 경제 위기 : 진단과 처방, 회복 가능성을 말하다	김성구	전체	1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김육훈	전체	1
읽기 프로그램	도요새책방 활동 공유회	-	성인	1
북콘서트	강양구의 과학수다	강양구	성인	1
	읽기 : 내 몸이 한 권의 책을 통과할 때	정희진	성인	1
도요새 특강	쓰기 : 느끼면 쓰게 되고, 쓰면 달라진다	은유	성인	1
	글쓰기 특강	고영직	성인	1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	김민영	성인	8
더느린살	평화가 깃든 밥상	송정은	성인	6
	전통주교실	허시명 외	성인	6
	한방건강교실-체질편	현승은	성인	4
동네수수작업장	생활목공 워크숍 기초반	박활민	성인	4
	생활목공 워크숍 심화반	박활민	성인	6
	데일리드로잉	김탕	성인	10
	초보농부들의 옥상텃밭이야기	최용범	성인	10
인문학 아카데미	나무깎는 생활-손가락, 그릇 깎기	길공방	성인	3
	움직이는 부엌 프로젝트	천원진	성인	6
	움직이는 부엌 오픈식	-	전체	1
지역네트워크	2015 수원 교사 인문학 아카데미	-	성인	8
	수원원도심이야기-남문사람들	골목잡지 사이다	전체	4
누구나학교	미술과 친해지는 교실-미술, 과학을 그리다	문화사회 다담	전체	6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 포럼	수원지역시민교육연구모임	성인	8
누구나학교	고교생 봉사프로그램 누구나쌤 7기	-	청소년	1
	누구나학습마을 주민리더교육	-	성인	4

2학기(9~12월) 교육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명사특강	[09월특강] 건강, 질병, 치유의 역사	황상익	전체	1
	[10월특강] 별 이야기와 함께 하는 우주산책	이명현	전체	1
	[11월특강] 누구와 함께 어디서 살 것인가	조한혜정	전체	1
	[12월특강] 이 시대의 사랑과 분노	정희진	전체	1
시민인문학교	가을문학 토크 : 작가를 만나다	고영직 외	성인	5
	동양철학을 보는 새로운 눈	김시천	성인	8
	신화로 철학하기	서동은	성인	8
	흥기빈의 경제 강의	흥기빈	성인	8
	인간의 탄생, 교육의 탄생	채효정	성인	8
외국어	여행영어회화 A반	독고앤	성인	16
	여행영어회화 B반	독고앤	성인	16
	리스닝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16
	왕초보영어 시작반	홍이성	성인	32
글쓰기	초보영어 계속A반	홍이성	성인	32
	초보영어 계속B반	홍이성	성인	32
	기초영어회화	홍이성	성인	32
	내 인생의 글쓰기	김소라	성인	16
마을열린극장	[09월] 한밤의 아이들	-	전체	1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시민기자학교	스토리텔링 기사쓰기	양훈도	성인	6	
생활문화강좌 발표회	생활문화 강좌 발표회 기획단 모임	-	성인	7	
	생활문화 강좌 발표회	-	전체	1	
시민교육 심포지엄	2015 시민교육 심포지엄	-	전체	1	
평생학습축제	2015 평생학습축제 워라도학교	-	전체	2	
휴먼라이브러리	2015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	전체	2	
찾아가는학교	동수원초등학교	-	어린이	41	
	매탄초등학교	-	어린이	8	
	매현중학교	-	청소년	26	
	버드내 노인 복지관	-	어르신	1	
	산의초등학교	-	어린이	4	
	아름다운 꿈의 도서관	-	성인	2	
	연무사회복지관	-	성인	5	
	연무초등학교	-	어린이	12	
	영동초등학교	-	어린이	1	
	영통2동주민자치센터	-	어린이	18	
	동성중학교	-	청소년	32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	성인	4	
	효정초등학교	-	어린이	27	
	희망샘 어린이 기자단	-	어린이	1	
	워라도학교 월담	[09월] 경기민요 한마당	유현지	성인	1
		[10월] 필름시대의 사랑	장률	성인	1
	워라도학교	[워라도학교]인생수업3기	-	성인	14
컴퓨터	실무엑셀 2010 기초반	공은화	성인	16	
	실무엑셀 2010 심화반	공은화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시작반	이재경	성인	32	
	왕초보 컴퓨터 활용반	임선자	성인	32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기획의 달인] 자료수집 방법 및 빅데이터 활용	김형택	성인	2	
	[기획의 달인] 하이브리드 생각정리	김경수	성인	1	
	[기획의 달인] 맥킨지식 문제해결 로직트리	이호철	성인	2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기획의 달인] 맥킨지식 문서력	이호철	성인	2
	[직장인 꿀팁] 회계어 완전정복	윤정용	성인	1
	[직장인 꿀팁] 크롬브라우저100% 활용하기	이정훈	성인	1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뉴스레터 디자인	임호열	성인	2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처음 블로그 디자인	이혜강, 성창열	성인	2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웹포스터 디자인	서동수	성인	4
	시니어를 위한 생활 밀착 스마트폰 1기	이주영	성인	6
	시니어를 위한 생활 밀착 스마트폰 2기	이주영	성인	6
	행복한 밥벌이를 찾아 떠나는 여행	황진규	성인	1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2015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	성인	8
인큐베이팅센터	강의 설계 컨설팅	-	성인	1
	동영상 제작	-	성인	4
	SNS 마케팅 컨설팅	-	성인	1
	업체 설립신고 컨설팅	-	성인	1
	강의 토크 컨설팅	-	성인	2
	성과 발표회	-	성인	1
	장애청소년	물감과 스케치	이경선	청소년
어깨동무 경제교실		김효연	청소년	16
바느질 공예교실		정미숙	청소년	15
음악	우쿨렐레(시작반)	한은경	성인	16
	우쿨렐레(계속반)	한은경	성인	16
	금요드림(초급반)	오세준	성인	15
	금요드림(고급반)	오세준	성인	15
	수요드림(초중급반)	오세준	성인	16
	수요드림(중급반)	오세준	성인	16
	토요드림(초급반)	오세준	성인	15
	토요드림(계속반)	오세준	성인	15
	클래식&포크기타(시작반)	신인근	성인	15
	클래식&포크기타(계속A반)	신인근	성인	15
클래식&포크기타(계속B반)	신인근	성인	15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음악	동네음악가와 하는 아무나 뮤직	김동현	성인	12
	힐링되는 청소년기타클럽 시작반	김동현	청소년	15
	힐링되는 청소년기타클럽 계속반	김동현	청소년	15
어린이 프로그램	송송동요교실	한윤희	어린이	15
	창의력 만화교실 A반	김을호	어린이	15
	창의력 만화교실 B반	김을호	어린이	15
	창의력을 높이는 즐거운 연극교실	박진숙, 배혜숙	어린이	10
건강체육	댄스스포츠 초급(차차차)	홍석민	성인	32
	댄스스포츠 중급(자이브)	홍석민	성인	32
	요가(평일반)	김현	성인	32
	요가A반(토요일)	김현	성인	15
	요가B반(토요일)	김현	성인	15
	맵시무브먼트(오전반)	이영미	성인	32
	맵시무브먼트(저녁A반)	이영미	성인	32
	맵시무브먼트(저녁B반)	이영미	성인	32
사진영상	사진&동영상 편집 및 슬라이드	문경순	성인	8
	사진편집&E-Book(PhotoScape활용)	문경순	성인	7
	DSLR 초중급반	나종민	성인	8
	DSLR 고급반	나종민	성인	8
	디지털카메라 A반	나종민	성인	4
	디지털카메라 B반	나종민	성인	4
문화예술학교	드로잉 기초반	이오연	성인	16
	드로잉으로 명확하기	이오연	성인	8
	드로잉과 레디메이드	이오연	성인	8
	나를 힐링하는 감성글씨	윤경숙	성인	12
	붓펜으로 쓰는 캘리그래피	윤경숙	성인	12
	이훈의 뮤지컬교실 입문반	이훈	성인	16
이훈의 뮤지컬교실 공연반	이훈	성인	16	

2015 프로그램 다시보기

나와 세상을 위한 글쓰기 + 읽기모임 글항아리 안다미로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 + 북콘서트

시민기자학교 : 세상과 만나는 글쓰기

동네 수(手)작업장

더느린삶

도요새책방 새단장파티 : 동네 북BOOK소리

웰컴투수원 + 웰컴투수원 곡선동

놀이터프로젝트 : 따로 또 같이

가을 명랑운동회

아무나뮤직 + 창작발표회

지역네트워크 - 수원원도심이야기<남문사람들>

독립출판 인디자인 워크숍

생활문화강좌 발표회 : 우리함께 발표회

나와 세상을 위한 글쓰기가 맺어준 인연 '글향아리 안다미로'

글 _ 박종대(읽기모임 '글향아리 안다미로' 리장)

1주일에 한번은 꼭 수원시평생학습관에 온다. 글쓰기와 책 읽기를 함께 하는 글향아리 모임을 하기 위해서다. 모임을 하면서 저녁에 강의를 한두 개 더 듣게 되면 학습관은 내가 가장 많이 가는 장소가 된다. 처음 학습관에 나온 것이 삼년 전이다. 그때 건강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작정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했었다. 30년 직장 생활을 했으니 할 만큼 할 것이지만 아쉬움이 컸었다. 그때가 2013년, 남아도는 시간을 배우기 위해서 여름에 엑셀 강의를 들었고 가을부터 글쓰기 강의를 들었다. 숨소리까지 들리는 좁은 공간에서 여성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 것이 몹시 어색했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 달력에 일기를 썼던 가락으로 글쓰기에 참여했다. 타고난 솔직함 덕분에 응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글쓰기 강의는 꼬박 일 년 참여했다. 더 하고 싶었지만 김소라 선생님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만두었나보다. 그 후 철학 강의를 단골로 들었고, 학습관에 나오기 시작한지 3년째, 2015년 봄에 드디어 고영직 선생님의 글쓰기 강좌를 만

났다. 선생님 강의가 좋았던 것은 내가 쓴 글에 첨삭을 해주는데 몇 글자 고치지 않는데도 내 글이 살아났다. 그것이 글쓰기를 계속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했다. 나 같은 아마추어는 글쓰기를 혼자 할 수 없다. 누군가 읽어 주기를 바라고 글을 쓰는 것인데 아마추어의 글을 읽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어딘가 나사가 한 개쯤은 빠진 내 글을 읽어달라고 보여주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지도 모른다. 자신감은 얻었지만 계속 글쓰기를 이어갈 동무가 필요했다. 다행히 글쓰기 강좌 뒤풀이에서 몇몇 분이 모임을 제안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글향아리 모임이다. 글향아리는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10시 30분, 도요새책방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만난다. 간단한 인사와 수다로 입을 풀고 글쓰기와 책읽기 전투에 들어간다. 다음 카페(<http://cafe.daum.net/flower-stalk>)에 미리 공지된 모임 자료를 챙겨서 활동을 시작한다. 첫 번째로 '글 따라 하기'를 하든가, '좋은 글 필사하기'를



한다. 안도현 시인의 글, '가을은 온다'를 따라 하기도 했다. 안도현 시인이 '매미 울음소리가 웬지 녹슬었다고 생각될 때 가을은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김광석 노래를 듣고 젊어지고 싶을 때 가을은 온다.'라고 했다. 따라하면서 작가들의 감성을 본받는다. 돌아가면서 따라하고 나중에 카페에 댓글로 올려서 저장하면, 그 댓글을 모아서 새로운 글을 함께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우리 모임의 핵심이다. 회원들이 정해진 글감에 따라 글을 쓰고, 카페의 '과제 향아리'에 올려서 먼저 온라인으로 읽어주고 댓글을 달아준다. 그리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글을 읽고, 거기에 의견이나 느낌을 말해준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얼굴 붉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또한 글감 이외의 글도 쓰고, 좋은 자료를 카페에 올려서 함께 공유한다.

세 번째 활동이다. 다음에 쓸 글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예를 들어 다음 글감이 '여행'이라고 하면 각자 인상 깊었던 여행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함께 얘기를 나눈다. 나중에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 글쓰기가 막연하지 않게, 글쓰기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에 사람, 추억, 상처, 공간, 에피소드, 물건, 여행, 꿈, 문화생활, 친구, 10개의 글감을 모두 소화했다. 2016년에는 인물, 영화, 동식물, 사랑, 용서·분노, 노래, 책, 종교, 내 생애의 최고 순간, A에서 Z까지, 날씨, 여행, 길, 시간, 구름이라는 15개의 글감이 기다린다.

네 번째 활동은 함께 책읽기다. 모임 시간의 반을 차지한다.

발제자를 정해서 책을 미리 읽어오고, 발제자가 중요하다고 끄집어낸 문제를 함께 얘기한다. 지금까지 '모멸감', '네 루다의 우편배달부', '센티멘털도 하루이틀'을 함께 읽었는데, 세 번 모두 책을 다시 살려냈다. 지금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20권을 함께 읽고 있는 중이다. 혼자 읽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서 건져내는데 그 묘미가 있다. 책 읽기도 소수의 의견으로 책을 선정하지 않고, 각자 한편씩 책을 추천해서 함께 읽는 방식이다. 다른 사람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같이 읽어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학습관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며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한다.

2015년 봄, 문학평론가 고영직 선생님의 '나와 세상을 위한 글쓰기'강의를 함께 들었던 9명이, 6월 19일부터 모임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열세 번 모였다. 꾸준히 회원이 늘어나 지금은 16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70세 어르신부터 32세까지 남녀노소 모두 있다. 열여섯 명 중에 나는 모임이 진행 되도록 심부름을 하는 리장이다. 글향아리기 때문에 회장이라는 직함보다 리장이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자료를 준비하고 모임을 알리고 모임을 진행한다. 그동안 모임을 시작하고 계절이 세 번 바뀌었다. 녹음이 단풍으로 물들고 나무가 옷을 벗고 가지만 남았다. 오늘도 회원님들이 많이 나왔기를 기대하면서 학습관 주차장에 차를 댈 때 가슴이 떨렸다. 언제까지 이 모임이 계속 될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글 _ 이명선(시민기자,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 수강생)

최악의 독자는 되지 말라는 니체

"책을 읽은 뒤 최악의 독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최악의 독자라는 것은 약탈을 일삼는 도적과 같다. 결국 그들은 무엇인가 값나가는 것은 없는지 혈안이 되어 책의 이곳저곳을 적당히 훑다가 이윽고 책 속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것, 지금 자신이 써먹을 수 있는 것, 도움이 될법한 도구를 끄집어내어 훑는다. 그리고 그들이 훑친 것만을 마치 책의 모든 내용인 양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삼가지 않는다. 결국 그 책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물론, 그 책 전체와 저자를 더럽힌다."

‘니체’의 말이다. 짧은 몇 구절을 읽어 내려가는데 부끄러움이 콧볼을 지나 얼굴로 번진다. 과거의 니체가 현재의 내 앞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그래, 나는 니체가 말하던 그 최악의 독자였다. 부끄럽다 말하면서도 최고의 독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의 말처럼 내 상황에 맞췄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을, 필요한 부분에 밑줄 긋고, 발췌하고 훑쳐서는 책의 이곳저곳을 인용하고, 필요에 따라 써먹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조차 잊었다. 그 책을 다 읽고 이해했다는 착각도 했다.

그의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제목에 끌려 걸

몇 든 여고생의 내가 몇 장 읽다 책을 덮은 기억이 난다. 아마도 다 읽었다 하면 어느 정도의 기억이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전혀 기억이 없는 걸 보면 다시 펼쳐 보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그리고는 분명 제목을 안다는 이유로 다 읽은 흥내를 냈을 것이다. 다 읽지도 않은 유명작가의 책들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제목의 근사한 포장지로 무지와 무식한 나를 들키지 않으려 철저히 봉했을 것이다. 양심의 가책으로 책을 많이 읽었다가 아닌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둔갑해 혹여나 보일 맨살이 두려워 독서토론과는 일정거리를 유지했을 것이다.

알을 깨는 연습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이 수원시평생학습관에 개설이 되어 신청서 접수를 할 때만 해도 부담이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겠느냐, 나처럼 무늬만 책과 친한 사람들이 오겠지' 하는 안일함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서도 신청자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밥벌이에 필요해서 오는 나처럼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오는 사람들일 것이라 착각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껍데기 모습으로 살아왔어도 괜찮았다. 누구도 내가 제대로 된 독서를 하지 않았다고, 최악의 독자였다고 뭐라 하지 않았다. 어제의 태양이 내일도 떠오르고,

세상이 달라짐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긍정의 언어가 서로를 밀쳐내지 않는 자석의 극처럼 달라붙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나를 움아매던 껍데기가 부서지며 결코 들키지 않았던 문제의 맨살이 드러났다. 수업시간이 20여 분 남았음에도 교실이 사람들로 채워지는 걸 보면서 '아차!' 했다. 책을 미리 읽으리란 생각에 검색한 도서관마다 '대출 중'이란 안내를 볼 때만 해도 '설마, 이곳에 수업 오는 사람들이 빌리진 않았겠지' 했는데 그 설마가 진짜였음은 그들의 손에 들려진 '책으로 다시 살다'의 도서관 표시를 보고나서였다. 숙제는 아이들만 하는 것이란 검은 속삭임으로 미리 주어진 과제를 하지 않음에 대한 합리화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독서토론을 한 후 속이 허전했던 적은 없다

책을 다 읽은 선생님들이 실전 토론을 할 것이란 예고에 어느 정도의 오고가는 각본이 있으리란 예상과 달리 바로 토론이 이어진다. 미리 이야기가 되어 만들어진 토론모임이 아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와서 전체적인 소개도 없이 잠깐의 수업 후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패널이 되어 수십 개의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앉은 것이다. 과제로 주어진 책을 읽은 후 별점과 그에 대한 소감이 이어지는데 눈 밑이 파르르 떨린다. 예상치 못한 답변들이 나온다. 그들의 공간은 불이 붙었다. 과제로 주어진 책에 대한 비

평도 이어진다. 이 책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고 다시 책을 읽어야 될 동기를 얻었다면 평이성과 지루함으로 별다른 감동이 없었다는 비평도 이어진다. 날카로운 자신만의 해석을 곁들일 때는 아하! 탄성이 새어나온다. '사이토 다카시'가 등장하고, '해피어'가 튀어오르고,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올라오고, '그리스인 조르바'의 여행이 시작되자 사정없이 두더지 잡는 망치가 작동을 한다. 생소함과 낯설음이 한꺼번에 치고 들어온다.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책들이 내 눈 앞에서 뚱뚱 떠다닌다. 손에 잡아본 적 없는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나는 부끄러움에 연신 헛손질이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면서 화자가 바라본 '나'를 보게 되면서 자신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지며 조르바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선생님, '나의 중심'을 찾게 되면서 의식의 눈을 뜨고,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잃게 되는 많은 것들, 그 시대의 언어로 전달되지 못하는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선생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현재'를 더 생각하게 되었다는 선생님.

구경꾼이 되어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책 한 권을 놓고 달리 해석하는 토론의 장을 보면서 책이 가진 힘, 독서가 주는 힘이 내게로 전달된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 서로에게 거울이 된다. 혼자 읽기가 충분히 된 후 함께 읽기를 하면 시야가 확장되어 좋다. 전체적인 걸 보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발판삼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읽기 전에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으니 충분히 자신이 주도적으로 심화독서를 한 후 함께 읽기를 하면 좋겠다. 자기만의 해소법이 생기는 게 독서다.”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된다면

책을 많이 읽고 토론을 즐겨한 사람들이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에 신청했을 것이다. 전문가 못지않은 깊이 있는 독서 가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여러 독서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독서토론에 눈을 뜨고 새로운 날개를 달고 싶은 사람도 있다. 책에 대한 기본 애정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혼자 책을 읽으면서 답답한 부분을 해소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 되는지 몰라 온 사람도 있다. 패널리 아닌 구경하는 사람으로 토론을 지켜보며 부러움도 있었지만 약간의 소외감, 공부 못하는 학생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갔다. 잘하고 싶으나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하는데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먼저 손을 내밀긴 어렵다.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이 필요함도 알겠으나 지식의 파편들이 오고가는 공간에서 나의 모자람을 드러내긴 결코 쉽지 않다. 4각의 모서리 있는 책상에서 ‘당연히 알겠지’의 전제보다는 ‘함께 만들어서 같이 누려보는 독서의 맛’이 둥근 책상에서 열렸음 하는 바람이다. “토론과 독서는 수레의 바퀴나 새의 날개와 같아서 한 가지만 버려도 학문을 할 수 없다.” -이산 정조



북콘서트 기획단 활동 후기1

책과 함께 나는 자라고 있다

나는 2년 전부터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장독’이라는 읽기 모임을 하고 있다. 이 모임에 도움이 되고 독서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독서토론진행자과정을 수강하게 됐다. 독서토론진행자과정은 일정한 형식과 논제에 따라 토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책읽기 외에도 논제 등을 준비해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긴 하나 책에 더 충실한 깊이 있는 대화를 맛볼 수 있었다. 이 과정을 들으면서 수원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북콘서트 기획단에도 참여하게 됐다.

전업주부로 있는 지 오래됐고 일에 대한 갈망이 컸기에 기획단 활동 자체가 설레고 신선하게 다가왔다. 회의 초반에는 의견들이 잘 맞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 등이 안 떠올라 혼란스러웠다. 과연 ‘북콘서트 라는 게 잘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몇 번의 회의 끝에 5명의 회원들이 끝까지 남아 북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었다. 처음으로 열릴 콘서트의 작가는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의 강양구 과학기자였다.

날짜를 받고 나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자전거 모양의 다투판 만들기, 작가에게 할 질문들을 포스트잇에 붙여 투표하기 등등이었다. 참신하고 재미있게 과학강연을 유도해 보자는 의도였다. 제목도 <세상과 대화하는 과학>으로 정했다. 이과생이라는 이유로 북콘서트 기획단 활동의 첫 사회자를 뜻하지 않게 내가 맡게 됐다. 선뜻 한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감은 커져만 갔다. 신랑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 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더 긴장된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을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콘서트 당일 비가 왔음에도 스무분 조금 넘게 오셨다. 강양구 기사는 그룹과의 같이라며 청중과 주고받는 다소 편안하고 쉬운 강연을 해주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 안의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됐다.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는

기획였고, 오신 분들도 그러길 바랐다.

2시간 남짓 떨리는 시간들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그 후 밀려드는 가슴 벅참은 지금도 생경하다. 가정주부로 책만 읽던 내가 색다른 성취감을 느끼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북콘서트 기획단원들이 힘을 모아 웃고 떠들며 즐겁게 준비한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특히 국화꽃과 굴을 준비해준 김정희 기획단원과 그걸 받고 수줍게 기뻐하던 기자의 미소가 참 따듯했다. 책을 읽고 나누면 배가 된다는 상투적인 말이 떠오른다. 책과 함께 나는 아직도 자라고 있다.

글_노윤영(북콘서트 기획단,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 수강생)

북콘서트 기획단 활동 후기2

모였노라, 기획했노라, 기약하노라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8회차의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을 수료한 후, 나를 포함해서 더욱 독서 토론에 목마름을 느낀 수강생들은 학습관의 배려(장소 및 다과 제공, 담당자의 물심양면 지원)로 후속 모임을 갖게 되었다. 단지 독서 토론만 하기에는 도요새 책방의 천장을 뚫을 듯 높은 우리들의 자아실현 욕구를 눈치챈 담당자의 적극적인 부추김으로(학습관 내 인력 부족이 원인인지 수강생 지원 정책의 활성화가 원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북콘서트 기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명칭의 모임이 재야 세력으로 조직되었고 마침

내 대망의 첫 북콘서트를 나름 성공리에 치러냈다.

88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심정이 이랬을까? 우리는 북콘서트에 초청할 저자의 책을 몇 회에 걸쳐 읽고 토론하고 그에 기초하여 콘서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넣었다 뺀다가를 반복했다. 날씨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이전에 신청 인원 부족으로 폐강된 적이 있는 이 저자의 문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주옥 같은 강좌가 우리의 능력 부족으로 다시 한번 사라지는 것이나 아닐지 두려움을 안고 준비는 계속되었다. 저자와 신청자들 사이의 다리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여러 마리의 토끼를 쫓는 심정으로 ‘재미’와 ‘의미’를 추구한 우리의 의도가 얼마나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청중의 수준에 맞게 ‘콘돔’을 소재로 시작된 강의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알차게 진행되었고 주옥같은 질문들이 이어져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세계사, 전쟁사, 사회학사, 여성학사에서 콘돔이 갖는 큰 의미를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엇보다 어려운 과학을 재미있는 강의로 전달해준 강사의 전문성이 북콘서트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다음 행사 기획을 요구하는 담당자의 적극성에 오늘도 우리는 (강의료가) 저렴하고 (강의는) 알찬 저자를 찾아 인터넷과 서점에서 손품, 발품을 팔고 있다.

글_유승연(북콘서트 기획단,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 수강생)



역사의 기록이 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글 _ 김수경(시민기자, 시민기자학교 수강생)

인터뷰,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글쓰기는 어렵고 나오는 안 맞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몇 년 전 시인의 글쓰기 수업(총8강)을 들을 때마다 어찌나 졸리던지 강사분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글쓰기 접근 방법이 안 맞았던 것 같다. 글쓰기는 문학 적 접근과 실용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나오는 실용적인 글이 맞는 것 같다. 시민기자로써 글을 배우면서 스쳐 지나 갔던 주변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생겼고, 글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글쓰기가 재미있게 느껴지고 '세상과 만나는 글쓰기' 강의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세상과 만나는 글쓰기 5강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편안한 인상을 주는 정홍모((주)이야기너머 대표) 강사의 "사람을 읽는 기술, 인터뷰 기법 및 쓰기의 이해" 강의였다.

평범한 단어와 평범한 문장으로 아무런 기교 없이 썼지만 힘이 느껴지는 인터뷰 글이 있다. 이 힘은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한 인터뷰하는 사람의 질문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질문의 힘은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호기심,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정치가? 경영인? 연예인?... 정홍모 강사는 평생 한 가지 신념으로 꾸준히 한 길을 걸은 평범한 이웃들에게 관

심을 가져보자고 한다. 한사람의 인생에는 그가 살아온 시대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삶을 이야기 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아버지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 안에 작은 역사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이것인가 보다.

역사의 기록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있다. 공적인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많이 있지만 평범한 사람의 일생의 기록은 사라져가고 있다. 사적 공간은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풀어 나갈 수 있다. 일상의 이야기를 써보는 것이다.

인터뷰 과정을 살펴보면 준비, 인터뷰, 글쓰기 순이다. 준비하는 과정에는 인터뷰 할 사람 선정, 질문지 작성, 인터뷰 할 시간 장소 설정, 옷차림 등이 있다. 좋은 인터뷰는 한번의 만남으로 안되므로 미리 답사하거나 부담없이 함께 생활해 보는 것도 좋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는 솔직하고 겸손하게 접근한다. 또한 깊이 있게 듣고 잘 쓰는 단어와 핵심 강조 단어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글쓰기 과정에서는 짧은 문장은 이해하기 쉽다. 한 문장에 한 생각만 담아보자. 개념보다는 사례가 중요하다.

성공보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나 개성이 잘 드러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보자.

정홍모 강사는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들 글쓰기 강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응어리를 가진 장애아의 어머니들은 가족으로부터도 소외 받는 아픔을 갖고 있었고 그 아픔을 글쓰기를 통하여 풀어내도록 하였다. 글로 표현하기까지 많은 눈물로 그들의 아픔을 보았다. 그 이야기가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평범한, 아니 너무나 감추고 싶었던 아픔이 세상에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가 이뤄지고 그들의 아픔도 치료해 줄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누구나 인간적으로 다 같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에 따라 글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의 이야기도 이 시대의 역사이며 소중한 기록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나 혼자 이 사회를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공동체 속의 나는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우리마을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용기를 갖고 이웃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이야기를 인터뷰 해보아야겠다.



동네 수(手)작업장

우리가 지나쳤던, 버려지는 것들을 위하여



글 _ 홍미라(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거북이 공방의 변화

2015년 초, 학습관 1층에 위치한 거북이공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느 강의실과 다르지 않은 큰 책상들이 줄지어 놓여있는 공간에서, 이름만 공방이 아닌 진짜 공방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 변화의 시작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 삶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일을 통해 새롭고 재미있는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모임. 지역 활동가와 학습관의 직원, 그리고 수원시 시민 참여자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그 시작이었다.

그리고 거북이공방을 재구성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공간을 다시 만드는 것은 상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경험이 필요했다. 조언을 얻고자 커뮤니티 공간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박활민 선생님에게 특강을 청했고, 이것을 인연으로 거북이공방의 생활 목공방으로서의 재탄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재활용 목공과 몸쓸공작단

동네수작업장에서 시작된 첫 강좌는 빠레트를 활용한 재활용 목공이었다. 기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목공 기초 강좌였지만,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재활용 ‘목공’보다는 ‘재활용’ 목공 강좌인 것이다. 그래서 매 수업에서는 숙제가 주어졌다. 빠레트를 활용한 재활용의 예시, 내가 직접 만난 재활용 제품들, 사람들이 직접 만든 타이니하우스 등을 찾아오는 것. 각자가 찾아온 이미지들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공구를 사용하며 제품을 직접 만드는 일 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이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것이 아주 쉽게 버려진다. 나무 빠레트도 마찬가지였다. 물건을 나르는 데에 몇 번 사용되다가 해체되어 겨울 공사현장의 땀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활용 목공 강좌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다. 비싼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톱질 한 번, 못질 한 번에도 많은 걱정과 고민이 필요한 일반 공방과는 달리, 나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심지어 톱으로 나무를 여러 번 잘라본다면, 전동 드라이버를 활용해 나사못을 박았다 뺐다던가 하는 연습도 가능했다. 매끈하고 깨끗하고 비싼 새 나무였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다. 하지만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샌딩기를 활용해서 사포질까지 마치고, 마감재로 바니쉬를 바르고 나면 이것이 버려진 나무 빠레트로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의 작품이 완성되곤 했다.

4주, 혹은 6주의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는, 많은 수강생들이

몸쓸공작단에 합류했다. 몸쓸공작단은 공공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그를 위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일종의 후속 자율모임이었다. 공방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테이블, 나무의자 등이 바로 이 몸쓸공작단의 공동 작품들이다. 공동 작업을 마치고 난 후에는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다. 연말에는 6주간 움직이는 부엌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3개의 움직이는 부엌이 완성되기도 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동네수작업장

주로 빠레트를 활용한 재활용 목공 강좌가 진행되긴 했지만, 이것만이 다는 아니었다. 수작업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손과 조각도만을 이용하여 숟가락과 그릇을 깎는 나무 깎기 강좌나 공작단과 함께 진행한 움직이는 부엌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아쉽게도 폐강이 되었지만, 재봉이나 적정기술 등의 강좌도 있었다. 특히 적정기술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2016년에 수강생들과 만날 예정이다. 공방은 담당자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 이곳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 올 한 해 담당자의 입장에서 사실 무척 궁금하다. 하여, 내년의 동네수작업장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수강생 후기

나도 노머니 라이프를 꿈꾸며

오랫동안 기다렸던 강좌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바로 생활 목공. 예전부터 목공을 해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기존 공방의 수강료를 알고는 깜짝 놀랐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상품처럼 뻔드름한 그런 것이 아닌데,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궁리하던 와중, 마침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생활목공 강좌를 만났다. 목요일 오후, 거북이공방에 도착하자 향

기로운 나무 냄새가 나를 반긴다. 얼마 전 진정한 공방의 모습으로 변신한 거북이공방이 내 맘에 쏙 든다. 이런 공간에 있어보고 싶었다. 좋다.

그리고 낡은 빛 빨강 티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깡통하게 접어 입은 자그마한 체구의 활. 활이 뭐냐고? 목공선생님 이름이다. 선생님이라고도 활님이라고도 부르지 말고 그냥 활이라고 부르란다. 수강생들도 모두 이름 하나씩을 새로 지었다. 이제 거북이공방 안에선 소나무, 망치, 현, 궁, 톱, 능실, 영, 썰, 동화, 새옹 그리고 나 소랑이다. 눈치 채고 있었지만 활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유망한 산업 디자이너이던 시절, 세상과 자신의 관계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 삶의 방향을 틀어버렸다는 활. 이제는 “삶디자이너”로 살아가고 있단다.

우리는 재활용 빠레트(적재된 물건을 올려놓는,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기 쉽게 쌓아놓은 나무받침)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게 된다. 공방 안에서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밖으로 나갔다. 빠레트의 부분 부분을 잘라내는 시간. 슬근슬근 톱질이야, 얼굴에서 땀이 흐른다. 못이 박혀 있는 빠레트 연결부분을 망치와 끌을 이용해 분리해 낸다. 우리가 잘라만든 유니트에 길이를 재서 선을 긋는다. 유니트에 클램프를 단단히 채워 작업대에 고정 시키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본다. 피스(나사못)을 길이별로 박아보고 빼보고 다른 유니트와 연결해본다. 늘 갖고 싶었던 전동 드라이버를 손에 잡아보니 듬직하다. 좋다.

단순히 목공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목공과 재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그것에서부터 자발적 사고와 실천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가는 것. 서로 “만나고 배우고 가르치고 만들고”가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활. 숙제를 내준다. 길에 다니다가 목공에 쓸 수 있는 재료를 포획해서 사진을 찍어 올 것! 집에 돌아와 오른팔에 파스 한 장 붙이고도 기분이 좋다. 지금까지 등록한 평생학습관 강좌 중 최고다.

글_이선주(수강생)

더느린삶

식초 만들기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글 _ 민경난(수강생)

요즘은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몸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 손 안에 들어온다. 그것도 초스피드로 말이다. 늘 종종거리며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는 항상 즉석 식품, 완제품 식품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조금씩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게 되면서부터 식초, 효소, 발효 식품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느린 삶”이란 멋진 말이 눈에 들어 왔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중 ‘한 박자 쉬면서 천천히 짚어 가면서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매력적인 단어에 나는 빠져 버렸다. 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식초 만들기! 사람들은 직접 만드는 초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예전의 기억들

로 부뚜막 위에 초 향아리를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 신기한 초향아리는 부뚜막을 차지하곤 매일 한 종지씩 꺼내 음식을 하고도, 막걸리 한 종지만 넣어주면 끊임 없이 끊임 없이 초를 내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려서 나는 그런 걸 보고 자라지는 못했다.

막연하게 ‘초는 몸에 좋다, 감식초를 만들어 먹으면 좋다.’ 정도의 지식으로 처음 식초 만들기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 수업에서 식초는 음식물 소화 흡수 촉진, 피로 요소인 젖산 예방 및 해소 효과, 스트레스 해소시키는 부신 피질 호르몬 생성을 하는 효능을 가진 식품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3번이나 수상 할 수 있을 정도로 식초 연구를 과학적으로 입증 한 좋은 식품임에 깜짝 놀랐다. 무엇보다도 집

에서 직접 만들어 활용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만들어 건강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다.

특히 막걸리를 이용한 식초도 좋았지만,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온갖 과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과일식초 만들기는 너무도 유익했다. 그 중에도 양과깍질, 과일 껍데기 등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식초는 획기적이며 좋은 활용 방법으로 권장할만한 식초 만들기 방법인 것 같다. 그 밖에도 쉽게 접하던 매실청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주어 그 또한 유익했다. 늘 매실 청을 담그며 설당 양에 대해 고민이었는데 효모의 생존 조건, 발효 조건을 이해하고 원리를 알고 나니 답답한 궁금증도 뺄 뚫렸다. 우리 조는 집에서 만든 초를 작은 병에 담아 와 서로 향과

맛을 비교하며 발효 환경과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식초 발효를 직·간접적으로 체험도 할 수 있었다. 먼 보자기 위로 솔솔 초 향이 풍기고 초파리가 날면 식초가 잘 발효하고 있어 행복하고 며칠 후 완성 될 식초 생각에 흐뭇해지곤 한다.

아침마다 식초를 안쳐 놓은 입구가 넓은 항아리 형 용기를 두 손으로 뚜닥 뚜닥 두드려 초막을 깨뜨리며 마법의 주문을 건다. 예전에 모래 놀이하던 두꺼비 음물에 맞춰서 말이다. 식초야, 식초야. 술 한 잔 줄게, 식초 주라. 식초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오늘도 식초가 익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또한 ‘한 박자 쉬면서 천천히 짚어 가면서 삶을 풍요롭게’를 되뇌어 본다.



책방 사람들을 만나다

글 _ 이신영(시민기자)

9개의 읽기모임,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함박눈이 펄펄 내렸다. 저녁에 외출을 하기 위해 나선 길은 눈이 녹아 얼어 미끄럽고 걷기 사나웠다. 예전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겨울눈은 해충을 죽여주고 풍년을 기대하게 하는 고마운 존재인데, 이제는 농촌에서도 시설 피해를 입히는 눈이 되었다. 더군다나 도시의 눈은 창을 통해 보기에 좋을 뿐, 바쁜 일상에 이동의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렇듯 날씨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 지는데 차가운 바람을 뚫고 간 도요새책방 파티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궁금했다.

도요새책방 입구에는 보드판이 세워져 있었다. 책방에게 바라는 점을 알록달록한 스티커로 손님이자 주인인 읽기모임 구성원들에게 묻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학습관 측에서 준비한 음식과 모임원들이 조금씩 준비해온 다과가 함께 차려져 있어 파티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었다. 사진사로 파티 이곳저곳을 촬영하시는 수원평생학습관 관장님의 모습은 삼삼오오 정담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눈이 와서 길이 살짝 얼어서 차가 막히는지 참석자들의 도착시간이 지연되어 7시 20분에 이제쯤은 씨의 진행으로 행사는 시작되었다.

첫 순서는 도요새책방이 달라진 점에 대한 이야기였다. 외

부에서 볼 때 변화된 부분은,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던 벽을 걷어내고 히든 도어를 개방한 것이다. 유리문을 통해 도요새책방 안 공간을 밖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참가자를 끌어들이는 좋은 계기가 될 듯 보였다. 내부에서 달라진 점은, 박원순 시장이 기증한 도서 자료들을 안쪽 서가에 정리하고, 서가와 카운터 구조로 바꾼 것이다. 함께 하는 사람들도 달라졌다. 재치발랄한 책방지기인 한소정 씨, 모든 일에 진지모드인, 명사특강과 인문학 강좌 등을 맡고 있는 김재민 씨 소개가 있었다. 사진사로 활약하고 계신 관장님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 도요새책방 새 단장과 더불어 새로워진 홈페이지도 소개했다. 읽기모임별 활동 일지를 게시판에 올려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두 번째 순서로 읽기모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집 통째읽기 모임의 소개로 시작됐다. 좋은 시집을 골라 와서 소리 내서 읽는 모임으로 시집 한 권을 모두 읽어보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양만호 신부님이 이용학 시인의 '그리움'이란 시를 낭송하며 소개를 마쳤는데, 눈 오는 날 어울리는 시를 울림 있는 저음으로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따지스트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출발해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학교

서 책을 통해 공부하고, 책에서 벗어나 알게 된 사실을 실생활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 PPT를 준비해 와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낸 소개였다.

사회간행물 읽기는 이슈가 된 사건이 실린 간행물을 읽는 모임으로 여러 매체의 다양한 의견을 접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동화읽는 어른모임은 회보에 소개된 것을 위주로 어린이 문학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으로, 그림책과 동화책을 읽는 재미, 듣는 재미를 알게 해주는 모임이다.

글항아리는 글쓰기 강의 후속모임으로 나와 세상을 위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날을 목표로 한다. 12월부터는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읽기 시작한다고 한다.

장독은 형식과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모임이다. 이름 같이 시간이 갈수록 발효가 되는 것처럼 서로에게 소통과 관계의 지속성으로 이로움을 주는 모임으로 나아가고 있다. 모임원들이 정현중 시인의 '방문객'을 낭독하는 것으로 소개를 마쳤다.

인문학 독서는 책 읽기와 인문학 강좌를 연관시켜 공부하고 1박2일 세미나 등 외부 활동도 함께 병행하는 아주 활발한 모임이다. 현재 『노자와 용』을 읽으며 행간의 숨은 의미를 찾고 있다.

사회학 세미나는 아주대 사회학과 학생 3명과 중학교 선생

님 한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젊은 패기가 있는 모임이다.

소셜 드림 프로젝트는 『유쾌한 크리에이티브』를 교본으로 삼고 5월에 몽골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임이다. 함께 몽골에 갈 모임원을 찾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도요새책방에서 준비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재치 있고 기발한 상들과 내용에 모두 함께 웃는 시간을 가졌다. 담당자들이 많은 준비를 한 파티라는 것이 느껴져서 영하의 날씨를 뚫고 달려온 보람이 있었다.



도요새책방 새단장 파티의 큰 의미는 서로를 알게 된 것이다. 책방을 중심으로 읽기모임이 이루어지지만 각 모임별 구성원을 알 기회는 없었다. 모임 소개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모임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는 학습관 직원들도 더 잘 알게 되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라는 정현중 시인의 말처럼 얼마나 커다란 의미인가? 모임이 없는 날 책방을 지날 때 파티에서 만났던 누군가에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게 되고, 좋은 사람을 항상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도요새책방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웰컴투수원,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이웃을 위한 특별한 환영회

글 _ 정희연(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살면서 대부분 몇 번쯤 경험하게 되는 이사는 정들고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만 새로운 곳,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두근두근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저런 기대와 설렘을 갖고 한 이사, 막상 와보니 길도 잘 모르고 버스는 어디서 타야하며 당장 자장면 한 그릇 사먹을 곳도 어디가 좋은지 몰라 우왕좌왕 하게 되기 일쑤다. 식구가 몸살이라도 나면 믿을만한 동네 병원이 어딘지 알 수 없어 답답한데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좀 물어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시원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사 직후에 겪게 되는 답답함을 풀어 줄 수 있는 '아는 사람', 바로 우리 동네에 먼저 살고 있는 이웃이다. 웰컴투수원은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새 이웃에게 이웃들이 열어주는 특별한 환영회이다. 동네 깨알 정보를 공유하고 마을의 현안도 알려 관심과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

이기도 하다. 친해지는 시간, 마을의 정보를 알려주는 '친절한OO씨의 이그나이트', 간단한 다과와 함께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이웃과의 테이블'로 구성된 90분의 프로그램으로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웰컴투수원 동 서포터즈와 주민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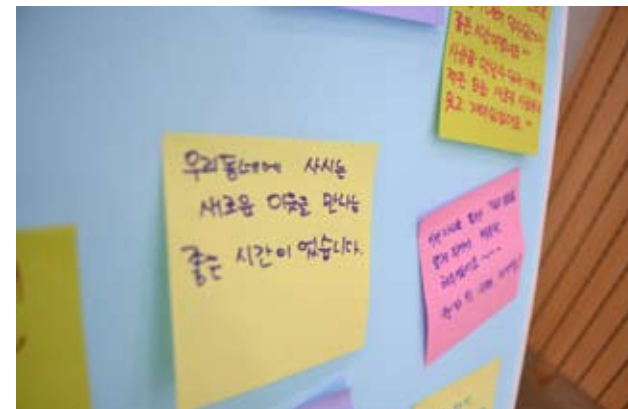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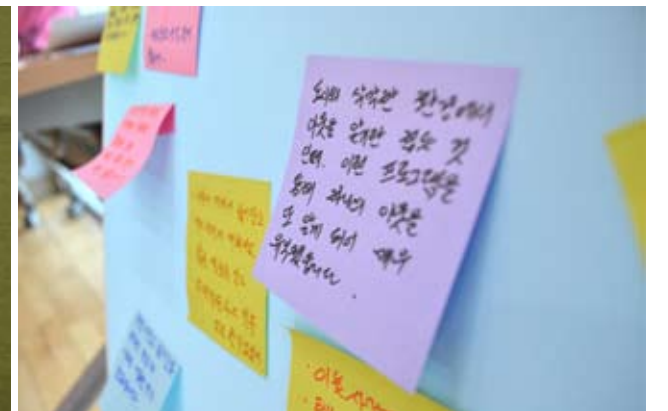
웰컴투수원의 시작

신도시 조성으로 대단위 전입세대가 많은 광고1동, 금호동과 상반기 시범운영을 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가 주관하여 각 2회에 걸쳐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지역학특강, 친절한OO씨의 이그나이트를 통해 수원과 거주 동에 대해 알고 이웃과 사귀는 시간을 가졌다. 5월에는 팔달구와 장안구에서 관내 각 10개 동의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센터 담당자 각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명회 및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6월에는 웰컴투수원 화서1동을 진행, 광고1동과 금호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더해 누구나학습마을, 새마을문고, 마을만들기협의회 등 마을 리더들이 함께 참여해 행사를 준비하여 주민 5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웰컴투수원

시범운영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웰컴투수원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지속적인 이웃 맞이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한 동별 '웰컴투수원 서포터즈' 구성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하반기에는 웰컴투수원 곡선동 서포터즈를 시작으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웰컴투수원의 가능성을 열어갔다. 마을의 리더들과 함께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주민들이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해 마을 일에 관심

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곡선동 서포터즈는 행사 기획을 위해 3개월 동안 3번의 워크숍과 여러 차례 조별로 개별 모임을 가졌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마을지도를 만들기 위해 동네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익숙한 마을을 새롭게 보는 경험도 하였다. 10월 31일 토요일 11시~1시에 진행된 웰컴투수원 곡선동 행사에는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하였고 곡선동 서포터즈의 활동은 2016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웰컴투수원 곡선동, 따뜻한 이웃맛이 프로젝트

글 _ 신연정(시민기자)

곡선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월 31일, 라디오에서 원종일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가 울려퍼지던 날, '웰컴 투 곡선동' 행사가 곡선동 주민센터 명당홀에서 열렸다. 곡선동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장:이병준)의 연주가 시작되자, 둥근 탁자 마다 초대된 사람들이 마주 앉았다. 활기 넘치는 주황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탁자 마다 눈에 띄었다. 행사를 마련하기 까지 굳은 일을 도맡아 한, '해바라기 서포터즈' 분들이라고 한다. 곧이어 '곡선동 해바라기 지도' 제막식이 열렸다. 서포터즈 분들이 직접 지혜샘 도서관, 반려동물 놀이공원, 해바라기 길 등 곡선동 명소 곳곳을 사진으로 찍고, 간략한 동네 소개를 곁들여 만든 지도다. 탁자에 함께 앉아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인연으로 자리하게 된 건지, 사연이 궁금하던 중, 사회자가 나선다.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지, 친해지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

'곡선동 주민 오셨습니까?' '70대 이상 오셨습니까?' '초등학생 친구들 왔나요?' 등 질문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를 부르는 형식이었다. 살짝 딱딱하던 분위기가 금세 따뜻하게 녹는다. 매끄럽게 행사를 이끌어가는 사회자는 수원시평생학습관 모데레이터 양성과정을 수료한 모데레이터라고 한다. 내가 앉은 7번 탁자 사람들의 얼굴을 살핀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연주를 한 초등

여학생들과 곡선동 토박이로 살고 있는 허분행 씨, 해바라기 서포터즈로 참가한 노병화 씨가 함께했다. 메모지에 각자를 소개하는 3가지 단어를 적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알고 보니 우리 집 아들 녀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누나도 있고, 매일 지나치는 이웃 아파트 주민도 있다. 그동안엔 무심코 지나쳤지만 이제 밖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자며 크게 웃는다. 이웃 간에 정이란 게 뭐 따로 있나? 서로 알아보고 반갑다 하는 것 아닐까?

남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웃이 되고 우리가 되는 시간

이어서 곡선동에 '친절한 OO씨'들이 동네에 대한 소개를 한다. 이그나이트를 활용한 발표다.(이그나이트(Ignite)는 '불을 붙이다'라는 뜻으로, 발제자가 준비한 슬라이드 20장을 사용해 5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주제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의사소통 방식이다.) 온천수가 나와 '온수골'로 불렸던, 곡선동의 역사를 들려주는 연승흠 해바라기 서포터즈 단장과 반려 동물과 함께 행복한 곡선동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는 동수원 동물병원 조도남 병원장이 친절한 oo씨로 나서서 잘 몰랐던 곡선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다음은 이웃과의 '달달한 테이블' 시간. 주말 아침부터 서둘러 나오느라 모두들 출출했을 시간에 떡과 어묵을 함께 나

눠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경로당과 독서실, 놀이터와 사무실 등, 평소엔 각자의 공간에서 따로 살기 바빴던 곡선동 주민들이 주민센터라는 한 자리에 모인 사실 자체가 큰 사건이다. 이웃이라 부르긴 하지만 남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웃'이 되고 '우리'가 되는 시간이다.

당산 나무 아래 명석 깔고 놀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곡선동 주민센터 김지영 담당 주무관은 곡선동에 주황색과 해바라기라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고 색깔을 입힌 것이 뿌듯하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웰컴투 수원 곡선동'이란 행사 이름 자체가 생소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참가를 이끌어내기가 힘들었지만,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동네에 멋진 스토리를 접하면서 일하는 내내 행복했다고 한다. 주민센터에서 장구 강좌를 듣고 있는 70세 박금숙 어르신은 옛날 고향 마을에서 당산 나무 아래 명석 깔고 놀던 생각이 난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신다.

곡선동에는 해바라기 서포터즈가 있다

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에 처음으로 모인 해바라기 서포터즈들은 이 날 행사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다. 3개월 동안 더위와 싸워가며, 마을 지도를 만들고 이그나이트로 발표할 내용도 고민하고 어떻게 3개월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고 한다. 서포터즈 가운데는 곡선동에 위치한 곡반초등학교 제자들과 함께 마을 그림 그리기를 이끈 선생님도 있었다. 행사장 한 편에 아이들이 그린 곡선동 마을 그림이 전시 됐고 '웰컴투 수원 곡선동'의 마지막 순서로 마을 그림 그리기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단체 사진을 찍으며 모두가 뿌듯한 모습이다.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하고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며 즐기는, 능동형 행사라는 점에서 '웰컴투 수원 곡선동'은 훈훈한 성공을 거둔 셈이다. 서포터즈를 미리 구성해, 주민 참여 형으로 행사를 기획한 점도 인상적이다. '웰컴 투 수원'을 준비하는 다음 마을도 곡선동 해바라기 서포터즈의 활동을 본 받을 만하다. 한 편, 최근 곡선동으로 전입해 오는 세대 가운데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특별히 외국인 세대에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급한 사정이 생겨 오지 못했다고 한다. 새로 곡선동에 전입해 온 주민에 대한 환대의 시간이란 의미는 살짝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 함께 하지 않았다면, 마을과 이웃의 따뜻함에 대해 나는 피상적으로 이해하려 들었을 것이다. 마을과 이웃의 따뜻함이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다. 주민센터를 들어설 때 보았던 곡선동에 낯선 골목, 낯선 사람들이 마치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변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느꼈다.



전래놀이 선생님이 된 육아휴직 아빠

글 _ 강정훈(수강생)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보통의 아빠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열차의 정거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에 도전하려는 아내를 위해 제가 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육아휴직을 결정하고 신청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가정주부와 아이돌보미로 지내는 생활은 정말 생소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차츰 차츰 집안일이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난 별로 아는 게 없는데, 괜히 나서는 게 아닐까...’

그렇지만 조금의 쑥스러움을 넘어서면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미 정원이 차서 신청이 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담당자분에게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전래놀이를 하는데 아빠들도 있어야 하잖아요. 저 좀 꼭 넣어주세요.”

이 애원이자 부탁이 효과가 있었는지, 며칠 후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

그러던 중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알게 되었고, 그곳의 “놀이터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과 혼자 놀기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 알려주고, 이웃과 함께 하는 놀이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린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함께 하는 건전한 놀이문화의 필요성을 평소에도 느끼고 있던 터라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거기가면 다 엄마들만 있을텐데, 내가 가서 어색하지 않을까...’



습니다. 저는 전화로 감사를 표했고, 어렵게 참여한 만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놀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보니 어머님들이 약 30여명 되었고, 남자는 저와 어느 어르신, 청이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저는 육아휴직 중인 아빠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전래놀이지도사 두 분에게서 4회에 걸쳐 실뜨기, 고누, 칠교같은 실내놀이와 다방구, 달팽이놀이, 깡통술래잡기 등등의 실외놀이도 배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배움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함께한 어머님들과 조를 편성하여, 동네에서 놀이마당을 펼치는 일을 기획했습니다. 아직 생소한 것이 많았지만 아이들에게 조상의 지혜가 담겨있는 전래놀이를 알려주고 싶은 열망 하나로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속상하고,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내가 뭔가를 배운 것은 그것을 나누기 위함이다’라는 생각 하나로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계획했던 놀이마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봄기운이 더해가는 4월의 어느 날, 어머님들 몇 분과 함께 동네에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공원 한 모퉁이를 차지하여 놀이마당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울까 염려했지만,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마련한 준비물들

을 늘어놓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함께 죽방울과 우유팩 딱지를 만들고, 같이 딱지를 찼습니다. 그리고 실뜨기도 하고 투호놀이도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놀이를 하게 하려고 스티커 용지를 나눠주고, 준비한 놀이를 다 체험한 아이들에게는 벼룩시장에서 이니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쳐주고 함께 놀다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보니 약 80명 정도의 아이들이 놀이마당을 다녀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놀이마당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놀이도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들과 함께 의논하며 고무줄놀이, 실뜨기, 제기차기, 죽방울을 하기로 하고 필요한 재료도 구입했습니다.

한달 후 다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날, 일찌감치 공원에 나와 놀이마당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니, 차츰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다녀간 친구도 있어서 훨씬 친숙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자신있는 제기만들기와 제기차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놀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기차기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흥미를 느끼게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재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생각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함께한 어머님들의 수고로 두 번째 놀이마당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뎀 얼굴이 저에게는 그 자체로 보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 라고 부르며 따르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 내가 작은 배움과 나눔으로 전래놀이 선생님이 되었구나... 이렇게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연말이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배운 것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지만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큰 보람과 기쁨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었습니다.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작은 것을 알려주고 나누었는데도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눔은 유익한 사람,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기억하며, 또 나의 자녀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알려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뜻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하는 놀이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뭔가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을 실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의 마음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평균 나이 50대, 열띤 <가을명랑운동회>

글 _ 이보라(수원시평생학습관 사업3파트장)

10월 15일 목요일,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푸른 잔디를 무대 삼아 수원시평생학습관 '가을명랑운동회'가 열렸습니다. 학습관 1층 반딧불이상담실을 밝혀주시는 평생학습상담사 선생님들과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함께 고민하시는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뭐라도학교 선생님들이 함께한 운동회.

홍팀과 백팀으로 팀을 나눠 카드 뒤집기, 이인삼각 릴레이 달리기, 짐볼 피구, 단체 짐볼 제기와 보물찾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인큐베이팅센터 cococo팀의 멋진 진행과 두 팀 선생님들의 은근한 승부욕이 발동해 더욱 열기를 띄었습니다.

만국기 펄럭이는 학교 운동장 대신 노란 코스모스와 키보 다 큰 억새가 펼쳐져 있는 당수동 시민농장 잔디광장에서 진행되었던 운동회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간단한 준비운동으로 시작한 운동회. 가운데 빨간색, 하얀색 카드는 무슨 용도 일까요?



우리 팀 색깔이 더 많이 보여야 한다! 홍팀은 하얀색 카드를, 백팀은 빨간색 카드를 뒤집습니다. 뒤집고 또 뒤집고 다시 뒤집히는 카드. 첫 게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서툴러도 괜찮아. 소소하게 함께 만드는 음악

글 _ 조진희(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짐볼을 굴리며 달린다. 심지어 두 발을 묶고, 협동과 민첩성이 필요한 게임에서 꼭 잡은 두 손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빠르게 가는 것도 좋지만 함께 발 맞춰 가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이인삼각에 이어 각 팀 팀장님들의 가위바위보로 시작된 짐볼 피구. 세트가 이어질수록 열기는 더해지는데...



파란색 커다란 짐볼이 숨숨 날아다닙니다. 피하세요! 잠깐의 휴식 이후 게임은 계속 됩니다.

커다란 테이블보를 꼭 쥐고 힘을 조절하고 타이밍을 잡아 하늘 높이 짐볼을 튀깁니다. 퐁퐁퐁... 한번에 100개를 훌쩍 넘기는 협동심에 입이 쩍 벌어집니다.



대망의 마지막 게임. 풍선을 붙여 크고 긴 비닐에 넣고 이어 달리기! 마지막 주자들이 결승선을 향해 뛰니다. 과연 승리 팀은 어디일까요? 그건 참여한 사람들만의 비밀로... 흥흥.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어진 운동회의 꽃 보물찾기. 진행팀이 꼭꼭 숨긴 보물을 찾아라!

25가지 보물 중 1등 상품은... "관장님은 결제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오랜만에 크게 웃고 신나게 뛰었던 수원시평생학습관 가을명랑운동회는 단체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평생학습상담사 선생님들과 뭐라도학교 선생님들, 진행을 맡은 cococo팀, 학습관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운동회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수원시평생학습관 곳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 싱어송라이터, 작사가, 작곡가, 연주가... 곡을 만들고 부르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뮤지션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능력이 부러워진다. 그런데 한편으론 특별한 사람들만 뮤지션이 되나? 멀리 공연장과 텔레비전에서만 만나야 하나?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 혹시 내가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과 근사한 무대장치나 뽕뽕한 사운드가 없어도,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음악들을 표현하고 만들고 소소하지만 함께 연주해보는 것은...

〈아무나 뮤직〉은 음악에 서툴러도 괜찮고 음악이 버거워도 괜찮다. 아무나 함께 모여 덩가덩가 둥둥둥 느린 템포로 배우며, 꼭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음악을 즐기는 자리이다. 프로그램 이름처럼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강좌이다.

“그래 놀자, 놀아 보자. 놀면서 배우면서 즐겨보자.”

“그냥 마음 놓고 거실 소파에서 기타를 튕기는 안락함과 창작의 만족을 느끼며 놀아보아요.”

“괜찮아요. 아무나니까. 우리 천천히 가요.”

“사회생활도 뻑센데 여기서라도 느슨하게 천천히 나와 우리의 템포를 찾아보아요.”

〈아무나 뮤직〉의 강사 동네뮤지션 김동현 선생님은 누구나 쉽게 음악을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본인의 이력도 다양하다. 수원환경운동센터 활동가이자, 수원시평생

학습관의 청소년포크기타 강사이면서 자원순환밴드〈인간 쓰레기〉, 〈주말엔 블루스〉 리더이기도 하다. 또 ‘출장 작곡’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드는 활동을 한다.

수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출장 작곡의 한 에피소드인 “남궁 순의 러브 송”이라는 한 할머니의 사랑 노래도 들어보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관심사를 나누고,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악기를 선택했다. 색소폰, 기타, 피아노, 우쿨렐레 등 자신이 고른 악기로 ‘Love me Tender’를 합주해보기도 했다. 이 때 악기를 처음 만져본 사람도 있었다.

기존에 있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세 번째 만남부터는 작곡을 배우고 짧게 노래를 만들어 발표했다. 게임 형식을 빌려 릴레이로 각자 한 마디씩 작사를 하고 무작위로 선정해서 코드와 음정을 한 마디씩 작곡하였다. 이것을 수업 끝에 다 같이 노래하고 연주해보았다.

비가내렸네
사랑의비가
덜덜떨렸네
홀딱젖은몸
커피타줘요

네마음대로
피어나는꽃
내맘속으로

※ 유튜브에 <아무나뮤직_비가 내렸네>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아무나 뮤직>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던 음악에 대한 생각을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동네뮤지션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악기로 연주하면서 창작의 즐거움을 맛보았다. 무엇보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고, 천천히 느슨하고 편한 분위기에서 작업하면서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뿌듯함을 공유하였다.

수강생 후기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을까 싶은 마음에 여러 기관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찾다가 우연히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아무나 뮤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다. 평소 음악을 좋아해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찾아 배우고 있던 차에 '아무나 뮤직'이라는 타이틀은 관심을 갖게 했다.

"어느 누구나 함께 음악을 만들고 같이 악기를 연주해서 곡을 완성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고 등록을 하고 개강을 기다렸다. 어떤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질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첫 수업에 임했다.

다양한 연령대에 회원 10여명이 모였다. 8주간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쉽게 곡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배우고 한마디씩 멜로디도 붙여 보고 코드도 달고 가사도 만들어 보고. 한마디씩 만들어 놓은 것을 연결하여 하나의 곡을 완성하고 각자 다룰 수 있는 악기로 연주도 해보았다. 부족한 부분은 강사님이 지도해주어서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었다. 작곡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중압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한국이 만들어진다는 게 신기했다. 각자의 곡을 만드는 과정은 좀 힘들기도 했지만 이것이 창작의 고통이라~~ ㅎㅎㅎ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수업에서는 곡을 완성하여 연주하고 발표회도 한다고 한다. 피곤한 삶 속에서 기다려지는 수업이었는데 이제 2회밖에 남지 않았다니. 아쉬움이 남는다.

작곡이란 이런 거구나~ 이제 맛만 살짝 봤는데...

이렇게 음악과 관련된 색다른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김지연(아무나 뮤직 수강생)

노래방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다. 음치, 박치인 내가 웃음 아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은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악기 하나 다룰 줄 안다면 음악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악기 하나를 익히는 것도 쉽지 않고, 나에게서 음악은 먼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나 뮤직"

이름에서부터 뭔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에 '아무나'라는 단어에서 음악에 문외한인 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8주 동안 음악의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고, 프로그램의 설명글도 마음에 들었다.

"악기의 기능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화음, 리듬, 합주, 연주... 작사, 작곡까지...?"

자기소개시간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묻는 질문에 피아노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과한 악기이고 짧은 시간에 연주하는 가능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난 지금 피아노를 연주한다. 코드를 연습하고 코드대로 치면서 팀에서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사실 말처럼 능숙하지는 않지만 피아노에서 핑음이 아닌 화음이 나와서 멜로디가 이어진다는 것이 신기하다. 한손으로 피아노 화음을 치고 다른 사람이 기타로 연주를 하고 서로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 시간. 물론 연주가 서툴러 완성도가 크지 않다는 흠이 있지만 그래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뿌듯하다.

나에게 피아노 연주만큼 획기적인 것은 곡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가사야 한글이니 뭐라도 쓰겠지만 음에 대

한 개념이 전무한 사람에게 작곡이란 넘사벽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을 배워 작곡한 것이 실험적이라는 강사님의 설명에 마음이 우쭐해졌다. 물론 작곡은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전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글_조진희(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아무나 뮤직 수강생)

창작발표회 후기

프로보다 빛나는, 아마추어들의 창작 열정

음악은 세계 공통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통하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벽을 깨는데 8주라는 시간은 충분했다. 8월 26일 수요일 늦은 7시 30분, 행궁동 문화상회 다담. 방금 구워낸 맛있는 음악이 행궁동에 넘쳐났다.

3개월 전, 수요일 저녁. 작사, 작곡을 한 후 연주를 하는 강의가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환경 음악가이며, 출장 작곡가인 김동현 강사님 앞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8명의 수강생이 모였다. '음악이 좋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8회, 16시간 동안의 '아무나 뮤직'여행이 시작되었다.

첫 날은 'Love me Tender'를 여러 악기로 호흡을 맞추어 나갔다. 피아노를 처음 다루는 분도 계셨지만, 강사님이 가르쳐 주신 코드만으로도 훌륭히 일조를 했다. 셋째 시간부터 들어간 창작수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코드를 먼저 정한 후 한마디의 곡을 만들었고, 넷째시간은 그 곡에 맞추어 가사를 쓴 후 연결하여 함께 불러 보았다. 옆사람과 맞춰보지 않고 각자 즉흥적으로 만든 곡과 가사는 연결이 되지 않는 듯 어색했지만, 그러나 각각 다른 개성들은 신기할 정도로 잘 어울렸다. 마치는 시간 9시를 넘길 때가 허다했다. 시계의 시침은 곡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를 두고 매번 앞서 갔다.

다섯째 시간부터 자신의 곡을 만들어 나갔다. 코드를 먼저 정한 후 곡을 만드는 사람, 자신의 시에 작곡을 하는 사람, 곡을 먼저 만든 후 가사를 쓰는 사람.

모두 자신의 성향과 느낌 가는대로 곡을 만들었다.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르는 것처럼 자신이 만든 곡에 플루트, 기타, 우쿨렐레, 피아노, 색소폰 중 어떤 악기가 어울리는지 의견을 모았고, 그 곡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찾기도 하는 참 재미있는 수업이 끝나는 날. 곡을 녹음한 후 행궁동에 있는 문화상회 다담에 모였다.

부족하지만, 작은 바람이 완성된 곡들을 듣는 순간 8주간의 수업 상황이 떠오르며, 가슴 한구석이 쨍해지는 건 모두 같았을 것이다. 강사도 수강생도 어찌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수업은 4주간 연장되었다.

드디어 8월 26일, 'AMUNA MUSIC 창작 발표회'의 뜻을 올리게 되었다.

색다른 신선함으로, 쉽게 흉내 내지 못할 '아무나뮤직'이 탄생한 것이다.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큰 뮤지션 중 한사람인 트럼펫 연주가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는 "음악은 중독"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며 계속 음악에 관심을 가져 볼 생각이다.

글_우경주(시민기자, 아무나 뮤직 수강생)



삶의 기억을 깨우는 소소한 이야기들

글 _ 사이다

수원시평생학습관과 골목잡지<사이다>가 함께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담아낸 <남문사람들>은 9월부터 시작해 월 1회 총 4회 4개월간 진행되었다. 그동안 골목잡지<사이다>가 만났던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원 청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여 팟캐스트 녹음 방식으로 담아냈었다. 수원 남문을 중심으로 살아온 그분의 삶과 터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인생 속에 녹아있는 수원 원도심 남문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매 시간 행궁동 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평상”에서 평상인 옷기시내(강시내)가 DJ를 맡았다.

1900년대 중후반 남문 ‘예쁘다 양장점’ 이야기를 아드님이신 이달호 선생님이 ‘경수사우나’ 이발사이신 임명섭 선생님이 남문 공중목욕탕 이야기를 1980년대 음악다방 ‘고칠현삼’ 주인이신 김상용 선생님이 남문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사람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와 1970년대 신봉초등학교 윤규섭선생님이 들려주는 학교와 아이들 이야기 등이 진행되었고 일반 수강생과 동네 이웃 어르신을 직접 초대하여 그분들의 삶과 터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한 청년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문화와 시대상에 호기심을 가졌고, 동네 주민들은 그 시절을 함께 회상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매 시간 녹음한 파일은 팟캐스트 ‘행궁동 방송반’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다.

지역 인문학의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사를 통해 생생한 지역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근 현대 지역의 과거는 옛이야기가 되어 잊혀지거나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아주 낯선 이야기들이 되어 간다. 현재 수많은 지역의 삶과 문화, 역사가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는 어떻게 기억되고 남겨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이 강의를 듣고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앞으로 지역학이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이다. 물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홍보나 기획은 좀 더 보강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삶이 지속되는 한 지역의 이야기들은 어떻게든 전달되고 기억되고 남겨져야 한다.



직무능력향상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워크 아카데미>에서 독립출판을 다룬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인디자인 툴에 관한 스킬만 배운다고 좁은 범주에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 스스로는 직무능력이라는 것이 험한 세상에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했고, 스킬에 머무르지 않고 수강생 개개인의 힘 있는 콘텐츠가 담긴 책이 탄생하는 수업이 되길 원했다.

디자인이 전문적인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이며, 누구나 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김은영 선생님은 그런 의도를 잘 살려서 수업을 해주실 분이였다. 정말 감사하게도 선생님과 강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막상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나니 수강생들이 8주간의 강좌에 충실히 임해줄까 잠시 걱정도 하긴 했다. 기도집에 어울리는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만들어 온 정준교씨, 200페이지의 책을 준비하다가 촉박한 마감 때문에 짧은 군산여행기로 책을 만든 임규희씨 또한 멋진 한편의 책을 완성하셨다.

책의 완성여부를 떠나 충실히 수업에 임해주신 모든 수강생들께 감사드린다. 지금에서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도 나만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세상에 내주시길, 나만의 책을 통해 또 살아가고 또 일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시길 바란다.

수강생 후기

판타스티코 멕시코! 그리고 판타스틱 인디자인 워크숍

사람들이 음악, 그림 또는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들이 자신을 표현해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기회가 된다면 나의 기억과 생각 혹은 미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구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독립출판을 기획부터 작업물 출판까지 배워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그것도 안그래픽스의 편집디자이너이기도 한 김은영 선생님의 강의로 개설된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과 함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는 생각보다 어르신 분들이 많아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인디자인이라는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다 30대 초반인 저와 비슷한 나이이거나 20대일거라 짐작했는데 그 역시도 저의 편견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학습능력은 나이가 아니라 호기심에 좌우되는 것인데 말이죠.

무엇보다 수업이 즐거웠던 이유는 강사님이 단순히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의 중요성과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인상과 메시지에 따른 편집 디자인 기본이론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표현의 도구를 찾고자 했던 저로서는 매주 토요일을 정말 알차게 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책에는 4년 전 떠났던 3개월간의 멕시코 여행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멋진 장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떠올리는 나라 멕시코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온 아름다운 나라 멕시코를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갈 때쯤 출판사 없이 개인적으로 책을 출판하는 이들을 위한 독립출판 전문 서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시 나도 그런 경로를 통해 극소수의 독자들에게나마 멕시코를 소개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조금은 허무맹랑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독립서점들을 찾아보던 중 홍대 지역에 여행을 테마로 하는 독립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책 내용을 검토한 후 돌아온 답변은 소량 입고 및 위탁판매가 가능하고 또 감사하게도 입고 기념으로 멕시코 사진전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전혀 없던 저에게 이렇게 작지만 특별한 기회가 왔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임에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책을 만드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잊고 있었던 여행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과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최초 기획했던 16페이지가 아닌 무려 40페이지의 소책자 『판타스틱 멕시코』가 완성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인쇄된 책을 처음 펼쳐보았을 때의 뿌듯함과 기쁨은 쉽게 잊지 못할 거구요.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엮어내는 독립출판 활동! 쪽 이어가고 싶습니다.

글 조윤희(수강생)

수강생 후기

삶을 기록하는 책을 만들다

경험을 좋아하고, 경험만큼이나 기록도 좋아하는 저의 습관은 2002년에 KOICA 해외봉사단원으로 중국 단둥에 파견되어 2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시간을 블로그에 적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외국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들을 기록해 나갔고, 그 기록은 활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기획자와 편집디자인의 손을 거쳐 저의 글이 『젊음, 나눔, 길 위의 시간』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책 만드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2015년 4월, 우연히 동네에 새로 생긴 도서관에서 수원시평생학습관 홍보물을 보다가 '인디자인' 특강이 4월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으나 이미 접수 마감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담당자에게 전화번호를 남기고 혹시라도 포기하는 분이 생기면 꼭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는데 며칠 후 결원이 생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즉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시작을 일주일 앞두고 '척수종양'이 발견되었고, 병원에서는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신경을 눌러 지금 당장 수술을 해도 하지마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여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수업 개강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이 눈에 들어올까 싶어 고민을 하다가 듣고 싶었던 수업이라 아쉬움이 남아 일단 첫 수업에 참석하였습니다.

첫 시간에는 인디자인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해주었고, 과정이 끝나는 날 책 한권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책의 주제를 정해 어떤 내용들을 담을 건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의 관심은 온통 척수종양 수술에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수술기를 책으로 만들기로 하고 주제와 목차 등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어진 각자 생각한 책의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에 2

주 정도는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수술 잘 받고 와서 꼭 책을 완성하고 싶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수술 잘 하고 오라고 응원해주셨고, 6시간 동안 진행된 척수종양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수술 후 3주 만에 저는 다시 인디자인 강의를 들으러 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계기일지 모르지만, 다시 와서 책을 완성하고 싶다는 저의 작은 바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밑거름이 되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차분하게 이론과 실습을 적절히 섞어 꼼꼼하고 친절하게 진행과정을 살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책을 들고 강의를 들으러 가는 날은 수술에 성공한 날만큼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을 기록한 책을 그 순간을 함께 해준 선생님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선물하며 그 시간을 다

시 한번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경험의 순간들이 찾아올 테고, 그 경험의 순간들을 직접 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런 멋진 지식을 알려주신 김은영 선생님과 서울에서 수원까지 선생님을 모셔와 주신 수원시평생학습관 담당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글 박임자(수강생)



우리 함께 발표회

글 _ 김소현(발표회 기획단)

2015 수원시평생학습관 생활문화강좌 “우리 함께 발표회”가 12월 5일(토) 오전 11시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우리 함께 발표회의 취지에 맞도록 수원시 평생학습관 생활문화강좌 수강생들이 3개월 전부터 기획단을 직접 만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를 맞대고 구상하고 토론하여 만들어진 발표회다.

드럼, 댄스스포츠, 맵시 무브먼트 맵시 운동, 청소년 기타 클럽, 아무나 뮤직, 우쿨렐레, 왕초보 영어, 연극교실, 송송동요교실, 뮤지컬 교실, 클래식&포크기타, 캘리그라피 교실, 드로잉 교실, 내 인생의 글쓰기, DSLR 사진, 창의력 만화교실, 어깨동무 경제교실, 물감과 스케치, 여행영어&리스닝 영어 등 총 19개 강좌의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및 무대 발표의 시간을 가진다.

오전 9시 서둘러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찾았다. 벌써 주차장은 꽉 차 있었다. 아마도 발표회 준비가 한창인 듯하다. 대강당 앞으로 들어갔다. 수강생들은 작품 전시에 분주했다. 어디 위치에 어떻게 전시할지 미리 구상하여 전시 중이었다. 아침 일찍 온 탓에 아침도 못 먹어, 잠시 짬을 내어 김밥을 먹기도 한다. 마치 어렸을 적 학예회 준비하듯 들뜬 모습들이다. 대강당 왼쪽부터 드로잉 교실, 물감과 스케치, 여행영어&리스닝영어, 내 인생의 글쓰기, 어깨동무 경제교

실, 캘리그라피 교실, 창의력 만화교실, DSLR 사진교실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내 인생의 글쓰기 수강생 서미희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 하나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보니 너무 멋지고 뿌듯하네요, 다들 좋은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옆에 캘리그라피 작품을 봤는데 너무 멋져서 저도 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침 일찍 작품전시 준비를 하며 힘들었을 텐데 그런 기색 없이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다.

11시 10분 전이다. 무대에서 발표할 팀들은 무대 뒤에서 준비 중이고, 사람들은 대강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수강생들이 중간중간 자리를 안내한다.

“여러분, 2015 수원시평생학습관 생활문화강좌 우리 함께 발표회를 시작하려 하오니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빨리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댄스스포츠 김영옥 씨와 드로잉 교실 박영란 씨가 말한다. 사회자 역시 수강생으로, 여느 사회자 못지않은 노련한 진행과 편안한 말투에 발표회가 더욱 빛이 나는 듯하다. 떨리는 첫 무대는 드럼의 연주로 시작되었다.

포미닛의 음악에 맞춰 두 대의 드럼이 박자를 맞췄다. 쿵 딱 쿵 딱 시원하고 힘찬 드럼 소리를 들으니 드럼의 매력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무대는 열정의 댄스 스포츠가 이어졌다. 초보 팀이라 아직 동작이 익숙지 않아 실수도 있었지만 오

히려 웃으며 재미있게 볼 수 있었다.

의상까지 맞춰 입고, 남자 여자 짝을 맞춰 춤을 추는데 어찌나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지 땀 흘리는 모습까지 보기 좋았다. 세 번째 무대는 이름도 낯선 맵시 무브먼트, 맵시 운동법이다. 말 그대로 몸의 맵시를 위하여 실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본 운동 동작들이다. 무대에서 하는 동작을 같이 따라 해 보니 단순하지만 몸이 시원해지면서 운동이 많이 되는 동작들이었다.

요가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운동인 것 같아 배우고 싶어진다. 네 번째 무대는 청소년 친구들의 힐링 되는 청소년 기타 클럽 연주다. 이한철의 슈퍼스타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요즘 청소년들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다.

다섯 번째 무대는 가장 궁금했던 무대 중의 하나이다. 동네 음악가와 함께하는 아무나 뮤직의 공연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 목소리 등 아무거나 이용하여 아무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아무나 뮤직은, 오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음악을 직접 만들어 연주하고 노래했다. 잠시 음악을 들으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여섯 번째 무대는 하와이 전통악기 우쿨렐레의 연주가 이어졌는데 꽃 화관을 쓰고 꽃목걸이를 하고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모습이 음악과 조화로웠고 연주하는 소리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일곱 번째 무대, 왕초보와 기초영어회화반의 팝송이 귀여운 안무와 함께 무대를 채웠다.

여덟 번째 무대는 초등학교 친구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즐거운 연극교실 연극 무대가 이어졌는데 교실을 배경으로 하며 경상도 사투리를 하며 연기하는 모습이 아주 당차고 진지했다.

아홉 번째 무대는 송송동요교실의 귀여운 아이들이 동요를 불렀다. 떨릴 법도 한데 아무지게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

나 사랑스러웠다.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 뮤지컬 교실의 공연이 열 번째로 이어졌다. 큰 무대에서 공연은 처음일 텐데 당당히 뮤지컬 발성으로 연기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정말 뮤지컬 배우인 듯 진지하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박수가 저절로 나온다.

마지막 열한 번째 무대는 클래식&포크기타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대를 가득 채운 기타 소리와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에 순간 매료되었다.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의 발표회가 끝이 났다. 발표를 끝내고 무대에서 나온 사람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해냈다는 자신감과 무대에 선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발표회를 앞두고 그 간 연습하고 노력한 모습은 오롯이 무대 밖 우리들에게 전해졌다.

발표회 시작 때 수원시평생학습관 정성원 관장님의 인사말이 생각난다. “여러분, 수원시평생학습관에 와서 왜 배우세요? 안 배우면 안 되는 일이라도 계신 건가요? 우리 스스로 배우고 원하고 그것을 펼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을 위한 배움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연 내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무대를 여기저기 누비시는 모습에 왜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전국에서 손꼽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발표회를 위해 3개월간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작은 실수와 어설픈 모습까지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 함께 발표회였다. 많은 수원시민들이 평생학습관을 통해 자기발전의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내년에도 더 좋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수원시민들의 배움의 열정에 화답하는 수원시평생학습관을 기대해 본다.





조직소개

관 장	정성원
실 장	백현주
사업1파트	박은미 정희연 조진희 권수정 엄소희
사업2파트	이재은 김재민 한소정 정다현
사업3파트	이보라 홍미라
운영팀	유정하 손지훈 안옥진 김성기

이용시간 및 주요연락처

시설명	월~금	토	이용문의
기본 개방시간	09:00~21:00	09:00~18:00	070-4477-6510(대관)
반딧불이상담실	09:00~19:00	09:00~18:00	070-4477-6515/6
담쟁이카페	09:00~21:00	09:00~18:00	070-4477-6517

※ 휴관일 |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